

연구보고서 2025-06

# 현장 교사 및 학생 만족도를 반영한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 연구

연구책임자 : 옥현진(이화여자대학교)

공동연구자 : 이천희(서울장평초등학교)

신윤경(전주교육대학교)

노 들(서울북성초등학교)

변자정(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25년 8월



이 연구는 2025년 (주)비상교육의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이나 의견 등은 (주)비상교육이나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 저학년 교육에서 오랜 기간 활용되어 온 통합교과 교과서의 현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통합교과 교과서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약 45년 동안 초등 저학년 학습자의 발달을 지원하는 주요 교수·학습 자료로 기능해 왔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의 학습 연계를 촉진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가 크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와 학습자 요구,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에 따라 통합교과 교과서는 지속적인 개편과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 이후 통합교과의 구조와 내용은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체육 중심의 새로운 통합교과 과목이 신설되고, 기존의 「즐거운 생활」 과목은 음악과 미술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교과서 개발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통합교과 교과서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경험하는 만족도와 요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교과 교과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교육과정 차원의 변화는 아직 미확정 상태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하여 실제 교과서의 내용과 디자인, 활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은 먼저 문헌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교과서 활용 실태와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특히 통합교과 교과서가 교수·학습 자료로서 가지는 기능과 한계, 삽화나 편집 요소와 같은 시각 자료의 적절성, 내용 오류 및 반복 구성 문제 등을 종합하였다. 이어서 국내 2015 개정 교과서와 2022 개정 교과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교과서 개발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2015 개정 교과서는 주제별 교과서 개발과 차시 재구성의 자율성을 강조했으나, 2022 개정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이 직접 수업 주제를 만들 수 있도록 주제 개발권을 현장에 이양하고, 플랫폼형·모듈형 교과서를 통해 교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 확

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사들에게는 수업 부담과 혼란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본과 핀란드 등 해외의 통합교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된 단원과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 편집이 특징적이었다. 핀란드의 경우 'PISARA'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의 탐구활동과 생활 경험을 긴밀히 연결하며, 시각 자료와 활동 중심의 구성이 학습자의 자율성과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에 있어 학습자의 생활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맥락 중심의 설계, 다양한 삽화와 활동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 그리고 교과 간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담고자 하였다. 우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지적하는 핵심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설문조사 문항으로 구체화하여 121명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교과서의 전반적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지나치게 많은 양의 학습 분량과 유사 차시의 반복,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활동 제시, 삽화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해 수업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붙임딱지와 같은 특수 학습자료는 교육적 효과가 있으나 품질 문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합교과 교과서는 초등 저학년 학습자의 발달 특성과 생활 경험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내용 체계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면서도 성취기준과 긴밀히 연결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편집과 디자인은 단순한 보조적 요소가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의 중요한 매개로 기능하므로, 여백, 글꼴, 시각 자료, 부가 학습자료 등의 적절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요구와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체계적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단순히 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교과서가 실제 수업에서 살아 있는 학습자료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개발진, 교육정책 담당자, 연구자 집단을 염두에 두고 제언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과서 개발진은 학습자의 생활 맥락을 반영한 주제 설계, 오류와 반복을 최소화한 교과서 구성,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활동 제시, 시각 자료의 정확성과 다양성 확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정책 담당자는 향후 출판사들이 검인정의 형태로 교과서를 개발하는 상황을 전제로 교과서 분량과 구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교사의 통합교과 재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수와 장학 지원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육 중심의 통합교과 신설을 비롯하여 안전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통합교과 운영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실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사들이 교과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자 집단은 근거 기반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해외 사례와의 비교 연구, 교사·학생 요구 분석,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통합교과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과 현행 교과서의 특성, 해외 사례, 요구 조사를 아우르며, 차기 교과서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통합교과 교과서가 단순한 교수·학습 자료를 넘어 학습자의 발달을 지원하고 교사의 교육과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향후 교과서 개발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초등 저학년 학습자들이 자기 삶과 연계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5
3. 선행 연구 검토 .....	8
<b>II 통합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관</b> .....	13
1.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	15
2. 2022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의 주요 특징 .....	20
3. 2015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비교 .....	24
<b>III 외국의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b> .....	37
1. 분석의 배경과 방법 .....	39
2.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 .....	41
3. 핀란드의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 .....	51
4. 소결 .....	58
<b>IV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요구 조사</b> .....	61
1. 교사 인터뷰 .....	63
2. 교사 설문 조사 .....	81
3. 소결 .....	93

<b>V 결론 및 제언</b> .....	<b>95</b>
1. 결론 .....	97
2. 제언 .....	99
<b>참 고 문 헌</b> .....	<b>103</b>
<b>부록</b> .....	<b>105</b>
1. 통합교과 교과서 주요 개선 방향(지도서 안내 자료) .....	107
2. 예시 단원(안) .....	109

## 표 차례

〈표 Ⅰ-1〉 통합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 양상 .....	3
〈표 Ⅰ-2〉 교사 대상 FGI의 주요 내용 .....	7
〈표 Ⅱ-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교육과정 체계 .....	16
〈표 Ⅱ-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교육과정 체계 .....	17
〈표 Ⅱ-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교육과정 체계 .....	19
〈표 Ⅱ-4〉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통합교과 교과서 개발의 특징 비교 .....	25
〈표 Ⅱ-5〉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통합교과 교과서 주제 비교 .....	26
〈표 Ⅱ-6〉 2015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내 차시 구성 요소 등장 횟수	30
〈표 Ⅱ-7〉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통합교과 교과서의 구성과 체제 비교 .....	32
〈표 Ⅱ-8〉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통합교과 교과서의 차시별 학습문제 개수 비교	34
〈표 Ⅱ-9〉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통합교과 교과서의 문장 형태 비교 .....	35
〈표 Ⅲ-1〉 학교생활 적응 단원의 내용 구성 .....	46
〈표 Ⅲ-2〉 계절 관련 단원의 내용 구성 .....	48
〈표 Ⅲ-3〉 핀란드 PISARA 1 교과서 목차 .....	53
〈표 Ⅳ-1〉 교사 인터뷰 참여자 정보 .....	63
〈표 Ⅳ-2〉 인터뷰 문항(서면) .....	63
〈표 Ⅳ-3〉 교사 설문 도구 .....	82
〈표 Ⅳ-4〉 설문 분석 결과 .....	85
〈표 Ⅳ-5〉 초등교사들의 삽화 선호도 .....	87

##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 흐름도 .....	6
[그림 II-1]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함께 만들어요’의 예(1-1, 사람들) .....	21
[그림 II-2]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배움 지도’의 예(1-1, 사람들) .....	22
[그림 II-3]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함께 골라요’의 예(2-1, 마을) .....	23
[그림 II-4]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의 단원 모형 .....	24
[그림 II-5]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약속’ 교과서의 보충 설명 및 말풍선 .....	29
[그림 II-6]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가을’ 교과서의 문장 위치(104-105쪽) .....	36
[그림 III-1] 일본과 핀란드의 통합교과 교과서 .....	40
[그림 III-2] 일본 통합교과 교과서의 구성 체제 .....	42
[그림 III-3] 두근두근 설레는 1학년(6~7쪽) .....	43
[그림 III-4] 일본 통합교과 교과서 구성 체제 .....	45
[그림 III-5] 새로운 생활(상) 목차 .....	45
[그림 III-6]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단원(80~81쪽) .....	49
[그림 III-7] ‘생물과 사이좋게’ 단원(58~59쪽) .....	50
[그림 III-8] PISARA 1 교과서 구성 체제 .....	51
[그림 III-9] 핀란드 PISARA 1 V 단원(44~45쪽/번역은 연구자) .....	56
[그림 III-10] 핀란드 PISARA 1 VI 단원(62~63쪽) .....	57
[그림 IV-1]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용 도서의 특징(교육부, 2022; 13) .....	65
[그림 IV-2] 2015-2022 개정 통합교과 신규대조표(교육부, 2022; 14) .....	66
[그림 IV-3]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의 안전 요소(교육부, 2022; 28) .....	73
[그림 IV-4]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전한 생활> 내용 체계(교육부, 2015; 30) .....	74
[그림 IV-5] 2015 및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활동 내용 비교(1) .....	79
[그림 IV-6] 2015 및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활동 내용 비교(2) .....	80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선행 연구 검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 통합교과 교과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1981년 12월 고시)에 도입된 후 2025년 현재까지 약 45년간 초등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통합교과 교과서는 일상의 삶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육과 교과로의 본격적인 분화가 시작되는 초등 중학년(3-4학년) 단계 사이에서 초등 저학년(1-2학년) 학습자의 발달을 촉진하는 일차적인 교수·학습 자료 역할을 담당해 왔다(정광순·홍영기·강충열, 2012).
- 통합교과 교과서가 도입된 이후 그 형태나 내용은 계속 변화를 거듭해 왔다(〈표 I-1〉 참조). 초등 저학년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된 경향과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요구(예를 들어 체육 교과의 분리, 한글 책임교육, 다문화교육, 유니버설 디자인, AI 교육 등)를 반영할 때 향후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 교과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지 그 방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표 I-1〉 통합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변화 양상

시기	제4차	제5차~제7차	2007	2009~2015	2022
교육과정	분과 교육과정	3개 통합교과 교육과정(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서	3개 통합 교과서 형태로 개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간 통합 교과서 개발	
통합 형식	개별 통합교과 내 영역 간 통합	통합교과 간 일부 단위 통합	8개 대주제 중심으로 통합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이후 2025년 현재 초등 2학년까지 통합교과 교과서가 개발·보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일치 불량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현행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해 내용 측면과 디자인 면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통합교과 교과서는 그동안 국정 교과서의 형태로 개발되어 검인정 교과서와 같이 선택 가능한 여러 교과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선호도 차이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지 않았다. 이에 통합교과 교과서가 향후 검인정 형태로 개발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교사나 학생들은 어떠한 형태의 통합교과 교과서에 좀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지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 나.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현행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해 교사, 학생, 교과서 개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차기 교육과정에서 통합교과 교과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 제4차 교육과정 이후 통합교과 교과서는 약 45년간 초등 저학년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교과서 개발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이 연구는 다양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향후 근거 기반의(evidence-based) 통합교과 교과서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개선 방안이 반영된 예시 단원을 개발한 다음 현장 적용을 통해 최종 예시 단원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통합교과 교과서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가. 연구 범위

- 이 연구는 통합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차원의 논의는 논외로 하고, 실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들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표 I-1>에 제시한 대로 통합교과 교과서는 제4차 교육과정 이후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교육과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2024년에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분리하여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즐거운 생활」을 음악과 미술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강화하는 통합교과로 개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 제29차 회의, 2024.4.26.),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과 교과서 개발에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결정 내용에 따르면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체계적인 신체활동 교육이 가능하도록 신체활동 중심의 통합교과(예: 「건강한 생활」)가 신설되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즐거운 생활」은 음악과 미술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 전술한 교육과정 차원의 변화가 차기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차기 교육과정에서도 초등 통합교과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과 교과서의 개발과 출판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서 실제적인 문제란 크게 교과서의 내용 측면과 디자인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내용 측면은 통합교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학습자의 발달 수준이나 주요 관심사에 부합하는지, 교과서에 제시된 각종 놀이 활동이 교과 성취기준의 의도에 잘 부합하는지 등과 관련된다. 디자인 측면은 각종 편집 요소(여백, 글꼴, 글자 크기 등), 시각 자료(그림, 도표, 사진 등), 붙임딱지와 같

은 학습자료의 적절성 등과 관련된다.

## 나. 연구 내용

○ 이 연구는 교육 현장의 요구와 선호도를 반영하여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연구의 흐름을 설정하였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 1)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FGI 및 설문조사)

○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최근 또는 현재 통합교과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통합교과 교과서의 전반적인 특성과 선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우선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 교사 인식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들을 추출할 예정이며, 이 결과는 초등교사 대상 설문조사 도구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교사들로부터 도출해 내려고 하는 주요 인식 요소는 <표 I-2>와 같다. 세부 내

용은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FGI를 통해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설문 문항을 제작하여 교사(n≥100)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취약 항목을 초점화하고자 한다.

〈표 1-2〉 교사 대상 FGI의 주요 내용

범주	세부 내용
교과서의 전반적 특성	·타 교과의 교과서와 구별되는 통합교과 교과서의 고유한 특성 ·통합교과 교과서의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주제 중심 접근에 대한 동의 정도와 주제 적절성에 대한 인식
검정 교과서 선택	·검정 교과서 선정의 일반적인 절차 ·검정 교과서 선정의 일반적인 주요 기준 ·통합교과 교과서 선택 상황에서 우선 고려할 요소
교과서 이용 형태	·교과서의 일반적인 이용 양상 ·교과서와 함께 활용하는 보조 자료의 유형 및 활용 방식 ·교과서 이용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
내용 정합성	·성취기준 반영의 적절성(놀이 활동과 성취기준 연계의 타당성) ·제시된 학습활동의 수준 적절성 ·내용 오류(글 자료 및 각종 시각 자료)
편집 적절성	·편집 제반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주요 개선 요구 사항 ·붙임딱지 등 초등 저학년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특수한 학습 활동 자료의 교육적 효과성 및 만족도

## 2) 교과서 분석

- 이 연구에서는 앞서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도출한 개선 방안 외에 교과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크게 다음 두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 첫째, 해외 통합교과 교과서 사례 분석이다. 연구 기간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되,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사례(예: 일본, 핀란드 등)를 중심으로 내용과 편집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 둘째, 2022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다음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가로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수평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 방안이다. 주지하다시피 초등 저학년에는 통합교과 외에 국어와 수학이 별도 교과로 존재하며, 따라서 이들 교과와의 유기적인 연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국어과의 경우 최근 한글 책임교육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글 깨치기 관련 활동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통합교과 교과서는 이러한 요구를 일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글에 대한 해득이 불충분한 발달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통합교과 교과서가 학생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 방안 도출

- 이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서 연구한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3. 선행 연구 검토

### 가. 통합교과 교과서 활용 양상에 관한 연구

- 교과서가 수많은 교수·학습 자료의 하나라는 인식은 확산되어 있지만, 실제 교실 현장에서 활용되는 주된 교수·학습 자료는 교과서이다(주형미 외, 2014). 교과서를 통해 교수·학습의 충실도를 확인하는 학부모의 인식으로 인해 교과서 외의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중복적으로 교과서로 다시 학습하는 양상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를 교수·학습 자료의 하나로 인식하는 교사 역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민보선·정광순, 2024). 이들은 교과서가 교수와 학습을 안내하는 자료로서 기능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수 자료로서 적절한지, 학습 자료로서 적절한지, 교수·학습 자료로서 유용한지, 교수·학습 자료의 사

용 맥락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교과서를 활용하고 있다.

- 통합교과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교과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양상도 찾아볼 수 있다(민보선·정광순, 2024). 이들은 특히 통합교과 교과서가 1~2학년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글보다 삽화를 통해 교육 내용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삽화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삽화의 내용이나 형식, 표현 방법 등을 포함한 교과서에 제시된 여러 텍스트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 통합교과는 교육과정의 자율성, 교사·교실 교육과정을 가장 강조하는 교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있는 교과서에 대한 인식은 ‘교실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라 할 수 있으나, 실제 이러한 인식을 가진 교사는 많지 않았다(민보선·정광순, 2024). 이들은 교실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방법,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교과서를 도구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교육과정은 점차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늘 제자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나 교과서를 활용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반추하여 교과서 개발진의 의도와 부합하는 교과서 활용 방안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 나. 통합교과 교과서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통합교과 교과서는 하나의 주제 단원을 한 권으로 개발되었다(교육부, 2024). 따라서 학생들은 한 학기에 네 권, 한 학년에 여덟 권의 교과서를 접하며, 한 달에 하나의 주제 단원을 학습하게 된다. 2015 개정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이는 주제 중심의 교과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양적

인 측면에서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사들은 2015 개정 교과서에 비해 가르칠 것이 훨씬 많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적인 증가는 교사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민보선, 2024).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의 일부 수업을 선택하여 단원을 재구성할 수 있으며, 교실의 상황맥락에 맞게 필요한 수업을 골라 주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다고(교육부, 2024) 안내하고 있지만, 교과서에 공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육 공동체(특히 학부모)의 인식이 이러한 교과서 개발진의 의도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면이 있다.
- 통합교과 교과서 내 유사한 차시가 반복된다는 것도 수업을 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민보선, 2024). 즉 주제 단위 내의 차시뿐만 아니라 주제 단위 간에도 유사한 수업이 반복되어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모듈형 교과서의 구현으로 인해 유사한 차시 사이의 계열성도 존재하지 않아 학생들에게는 비슷한 수업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교과서의 이러한 구성 방식은 재구성과 통합을 통한 교실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함이지만, 교과서가 제시하는 순서대로 따라가는 교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 교사들은 통합교과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류영규·박한숙, 2024). 예컨대 학생들의 주체적인 자율성을 강조한 ‘배움 지도’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함께 만들어요’나 ‘수업 묶음’과 같이 교사 교육과정, 교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조한 측면도 교사에게는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따라서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교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다.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의 삽화 관련 연구

### ○ 학생의 흥미와 학습을 동시에 고려하는가?

-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과 교과서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글보다 삽화가 많은 편이다. 교과서에서 삽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삽화의 기능이나 효과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이희정, 2015) 통합교과 교과서의 삽화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저조한 편이다.
- 교과서 속 삽화는 교과 학습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의 방향을 이끄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정광순, 2007). 따라서 삽화 표현이 정확해야 하며, 학습 내용과 관련성이 높아야 하고, 교육적인 동시에 학습자의 흥미를 사로잡아야 한다. 이한나(2014)의 연구에서는 외국의 통합교과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통합교과 교과서는 삽화의 비율이 낮고, 다양한 학습 국면에서의 삽화 활용도도 낮으며, 특히 학습활동을 안내하는 역할의 삽화 비중이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삽화를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의 선호도나 요구 분석(예: 김동환, 2008)을 기반으로 삽화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 표준과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가?

- 교과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정광순, 2007: 96). 이러한 점에서 교과서는 정확하고, 바르며, 오류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학습 매개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서책형 교과서의 경우 출판된 이후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야 하지만, 교과서 출판 이후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리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윤근혁, 2024).
- 한편 다양성이 표준으로 작용하는 학습 상황에서는 일부의 사례가 대표성을 띠지 않도록 최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인종·다민족·다문화 사회에 관련한 학습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인종이나 민족이 전체를

대표하지 않도록 최대한 다양한 사례의 삽화가 소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열이나 서열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학습 상황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다문화 교육 관련 삽화에서 보여주는 사례가 제한적이므로(박창진·김경식, 2017)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통합교과 교과서 삽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삽화 표현의 정확성, 적절성,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II

# 통합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관

1.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2. 2022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의 주요 특징
3. 2015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비교



## 1.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정에 통합교과가 처음 제시된 것은 5차 교육과정기로, ‘편제와 시간 배당’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교과 활동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로 편성한다. 다만, 1, 2학년의 통합교과 활동은 ‘우리들은 1학년’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편성한다.

그리고 운영 지침에서 ‘1, 2 학년의 통합 교과의 운영은 내용 및 활동의 통합성을 고려하여, 그 연계가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하여 3학년 이후 분화할 각 교과의 학습 요소를 기반으로 하되 일정 정도의 통합을 부각하고 있다.

6차 교육과정기에도 교과와 교과 간의 일반적 통합 양상을 보였다. 교육과정 목표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바른 생활’과는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알고 익히도록 하는 체험과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 교과이다. 이를 위해 ‘바른 생활’과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 예절, 규범을 학생의 생활 경험과 관련하여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바른 생활’과는 내 일 스스로 하기, 예절 지키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 하기의 다섯 가지 대주제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교육과정 전반을 통해 강조하는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인권 교육, 정보 통신 윤리 교육, 통일 교육, 생명 존중 교육, 교통안전 교육, 진로 교육 등의 내용도 활동 주제에 반영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통합교과 교과서가 ‘대주제’에 근거하여 구성된 시기는 2009 개정 교육과정기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통합교과의 특성을 명시적으로 서술하였다. 이후 교육과정에 제시한 통합교과의 ‘대주제’는 통합교과 교과서 구성의 주요한 지표가 되었다.

2009 이후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교육과정 체계

대주제	소주제	교과별 활동 주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학교와 나	·학교생활 ·나와 친구 ·몸 ·나의 꿈	·안전하게 등·하교하기 ·친구와 서로 도우며 공부하기 ·몸 소중히 다루기 ·나의 꿈 가꾸기	·학교 둘러보기 ·친구에게 관심 갖기 ·몸 살펴보기 ·나의 꿈 찾아보기	·학교 놀이하기 ·친구와 놀이하기 ·몸 표현하기 ·나의 꿈 표현하기
봄	·봄맞이 ·새싹 ·봄 날씨와 생활 ·봄나들이	·봄맞이 청소하기 ·새싹 보호하기 ·봄철 건강관리하기 ·자연 환경 보호하기	·봄의 모습 찾아보기 ·싹 틔우기 ·봄 날씨와 생활 알아보기 ·봄나들이 계획하기	·봄 교실 꾸미기 ·새싹 표현하기 ·봄 날씨를 주제로 놀이하기 ·봄나들이 가기
가족	·집 ·가족 ·친척 ·다양한 가족	·집에서 스스로 공부하기 ·가족 간의 예절 지키기 ·가족이나 친척의 소중함 알기 ·다양한 가족 존중하기	·우리 집 살펴보기 ·집안일 조사하기 ·가족과 친척 알아보기 ·다양한 가족 이해하기	·우리 집 표현하기 ·가족과 함께하기 ·가족 소개하기 ·다양한 가족 문화 표현하기
여름	·여름 풍경 ·곤충 ·여름 날씨와 생활 ·여름 방학	·건강한 여름나기 ·안전한 여름나기 ·에너지를 절약하는 생활하기 ·여름 방학 생활 스스로 준비하기	·여름 풍경 찾기 ·곤충이나 식물 조사하기 ·여름 날씨와 생활 살펴보기 ·여름 방학 생활 계획하기	·여름 느끼기 ·곤충과 식물 표현하기 ·여름 축제 열기 ·물놀이하기
이웃	·이웃 ·가게 ·우리 마을 ·직업	·이웃과 인사하기 ·물건 소중히 하기 ·공공시설과 물건 아끼기 ·일의 소중함 알기	·나의 이웃 살펴보기 ·생활에 필요한 물건 알아보기 ·우리 마을 둘러보기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일 조사하기	·이웃 생활 표현하기 ·가게 놀이하기 ·우리 마을 자랑하기 ·직업 놀이하기
가을	·추석 ·낙엽과 열매 ·가을 날씨와 생활 ·가을 행사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기 ·자연에 감사하는 생활하기 ·서로 돕는 생활하기 ·질서 지키기	·추석 알아보기 ·가을 낙엽과 열매 관찰하기 ·가을 날씨와 생활 살펴보기 ·가을행사 조사하기	·민속놀이 하기 ·낙엽과 열매로 표현하기 ·가을 풍경 표현하기 ·가을 행사에 참여하기
우리 나라	·우리나라의 상징 ·전통문화 ·이웃나라 ·남북통일	·우리나라의 상징 알기 ·전통문화 소중히 여기기 ·외국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 갖기 ·통일을 위한 노력 알아보기	·우리나라 소개하기 ·전통문화 살펴보기 ·이웃나라 조사·발표하기 ·남북한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나라 상징 표현하기 ·전통문화 체험하기 ·문화 알리미 놀이하기 ·통일 전시회 열기
겨울	·겨울맞이 ·동물 ·겨울 날씨와 생활 ·겨울 방학 ·한해를 보내며	·나누는 생활 실천하기 ·동물 보호하기 ·겨울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겨울 방학 생활 스스로 준비하기 ·한 해 생활 반성하기	·나누는 생활 찾아보기 ·동물의 세계 탐구하기 ·겨울 날씨와 생활 살펴보기 ·겨울 방학 생활 계획하기 ·내년 생활 준비하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동물 표현하기 ·겨울 풍경 표현하기 ·겨울 놀이하기 ·나의 한 해 표현하기

〈표 II-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교육과정 체계

영역 (대주제)	핵심 개념 (소주제)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 학교	1.1 학교와 친구	학교는 여러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 학교 생활과 규칙	• 학교 둘러보기 • 친구 관계	• 친구와의 놀이 • 교실 꾸미기	[바른 생활] 되돌아보기 스스로 하기 내면화하기 관계 맺기 습관화하기  [슬기로운 생활] 관찰하기 무리 짓기 조사하기 예상하기 관계망 그리기  [즐거운 생활] 놀이하기 표현하기 감상하기
	1.2 나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 몸과 마음의 건강	• 몸의 각 부분 알기 • 나의 재능, 흥미 탐색	• 나의 몸, 감각, 느낌 표현 • 나에게 대한 공연·전시	
2. 봄	2.1 봄맞이	사람들은 봄의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생활을 한다.	• 건강 수칙과 위생	• 봄 날씨와 생활 이해 • 봄철 생활 도구	• 봄 느낌 표현 • 집 꾸미기	
	2.2 봄 동산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은 다양하며 봄에 할 수 있는 활동과 놀이가 있다.	• 생명 존중	• 봄 동산 • 식물의 자람	• 동식물 표현 • 봄나들이	
3. 가족	3.1 가족과 친척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 가정 예절	• 가족의 특징 • 가족·친척의 관계, 가족 행사	• 가족에 대한 마음 표현 • 가족 활동 및 행사 표현	
	3.2 다양한 가족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며, 구성원마다 역할이 있다.	• 배려와 존중	• 다양한 형태의 가족 • 가족 구성원의 역할	• 집의 모습 표현 • 가족 역할 놀이	
4. 여름	4.1 여름맞이	사람들은 여름의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생활을 한다.	• 절약	• 여름 날씨와 생활 이해 • 여름철 생활 도구	• 여름 느낌 표현 • 생활 도구 장식·제작	
	4.2 여름 생활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은 다양하며 여름에 할 수 있는 활동과 놀이가 있다.	• 여름 생활 및 학습 계획	• 여름 동식물 • 여름방학 동안 하는 일	• 여름 동식물 표현 • 여름철 놀이	

영역 (대주제)	핵심 개념 (소주제)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5. 마을	5.1 우리 이웃	이웃은 서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 공중도덕	• 이웃의 생활 모습 • 공공장소, 시설물	• 이웃 모습과 생활 표현 • 공공장소 시설물 활용 놀이	
	5.2 우리 동네	내가 생활하는 동네에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 일의 소중함	• 동네에 있는 것들 •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 동네 모습 표현 • 직업 놀이	
6. 가을	6.1 가을맞이	사람들은 가을의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생활을 한다.	• 질서	• 가을 날씨와 생활 이해 • 가을의 특징 알기	• 가을의 모습과 느낌 표현 • 가을 놀이	
	6.2 가을 모습	명절은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가 있다.	• 감사	• 추석, 세시 풍속 • 낙엽, 열매	• 민속놀이 • 낙엽, 열매 표현	
7. 나라	7.1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상황이 있다.	• 나라 사랑	• 우리나라의 상징과 문화 • 남북한의 생활 모습과 문화	• 우리나라의 상징 표현 • 남북한의 놀이, 통일에 대한 관심 표현	
	7.2 다른 나라	각 나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 타문화 공감	• 다른 나라 문화 • 다른 나라 노래, 춤, 놀이	• 다른 나라의 노래, 춤, 놀이 즐기 • 문화 작품, 공연 감상	
8. 겨울	8.1 겨울맞이	사람들은 겨울의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생활을 한다.	• 나눔과 봉사	• 겨울 날씨와 생활 이해 • 겨울철 생활 도구	• 겨울 느낌 표현 • 놀이 도구 제작	
	8.2 겨울나기	사람과 동식물은 겨울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한다.	• 동식물 보호 • 겨울 생활 및 학습 계획	• 동식물 탐구 • 겨울에 하는 일	• 동물 흉내 내기 • 겨울철 신체 활동	

〈표 II-3〉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교육과정 체계

영역	핵심아이디어	범주	내용요소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움 생활
우리는 누구로 살아 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생활한다.</li> <li>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li> </ul>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li> <li>자기 이해</li> <li>생태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안팎의 모습과 생활</li> <li>자아인식</li> <li>가족과 주변 사람</li> <li>사람·자연·동식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과 안전</li> <li>신체 인식과 감각</li> <li>자연의 아름다운 장면</li> </ul>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습관 형성하기</li> <li>관계 맺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색하기</li> <li>설명하기</li> <li>탐구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하기</li> <li>소통하기</li> <li>감상하기</li> </ul>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하고 건강한 생활</li> <li>자기 존중</li> <li>배려</li> <li>더불어 사는 삶</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한 학교생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울림</li> <li>건강한 생활</li> <li>안전한 생활</li> </ul>
우리는 어디서 살아 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생활한다.</li> <li>우리는 삶의 공간을 넓히며 생활한다.</li> </ul>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생활 모습</li> <li>우리나라의 소중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의 모습과 생활</li> <li>우리나라의 모습과 문화</li> <li>다른 나라의 모습과 문화</li> <li>궁금한 세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의 문화 예술</li> <li>다른 나라의 문화 예술</li> </ul>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천하기</li> <li>호기심 갖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펴보기</li> <li>조사하기</li> <li>탐구하기</li> <li>매체 활용하기</li> <li>탐색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예술 활동하기</li> <li>표현하기</li> <li>상상하기</li> </ul>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라 사랑</li> <li>다양성 존중</li> <li>적극성과 도전의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심</li> <li>호기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 예술 향유</li> </ul>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 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는 여러 유형의 주기로 생활한다.</li> <li>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생활한다.</li> </ul>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물의 삶</li> <li>지속가능한 삶의 방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루의 변화와 생활</li> <li>계절과 생활</li> <li>과거-현재-미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의 변화</li> <li>전통문화</li> <li>아동권리</li> </ul>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루 생활 관리하기</li> <li>변화에 대응하기</li> <li>실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탐색하기</li> <li>탐구하기</li> <li>살펴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에서 놀이하기</li> <li>창의적으로 표현하기</li> <li>권리 누리기</li> </ul>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의 가치</li> <li>적절성</li> <li>공동체성</li> <li>지속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상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기찬 생활</li> <li>전통의 소중함</li> <li>안전과 안녕</li> </ul>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 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는 경험하고 상상하고 만들며 생활한다.</li> <li>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며 생활한다.</li> </ul>	지식·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두를 위한 생활 환경</li> <li>학습 습관</li> <li>생활 습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 도구의 모양과 기능</li> <li>다양한 매체와 재료</li> <li>관심 주제</li> <li>배운 것과 배울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각과 느낌</li> </ul>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하기</li> <li>생각이나 의견 나누기</li> <li>협력하기</li> <li>되돌아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꾸기</li> <li>매체 활용하기</li> <li>상상하여 구현하기</li> <li>조사하기</li> <li>연결하기</li> <li>탐색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치기와 만들기</li> <li>놀이하기</li> <li>전시하기</li> <li>공연하기</li> <li>경험 떠올리기</li> </ul>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두를 위한 마음</li> <li>개방성</li> <li>자발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로운 상상</li> <li>의미 부여</li> </ul>

## 2. 2022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의 주요 특징

### 가.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의 주요 특징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교과서의 증점적인 개선 방향은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안전한 생활’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자율성 확대는 교실 교육과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주제 개발권, 플랫폼형 교과서, 모듈형 교과서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다. 우선 주제 개발권이란 기존에 교과서 개발자가 교육과정의 대주제를 기반으로 주제별 교과서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실에서 주제를 직접 생성하도록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주제 개발권을 현장에 넘겼기에 교과서 개발자나 수업을 만드는 교사에게 주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새 교과서의 주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주제가 아니라 교과서 개발자가 일반적인 초등학교 1, 2학년 교실을 고려해서 개발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교실에서는 교과서의 주제를 각 교실 여건과 조건에 맞추어 구체화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별 교과서를 개발해서 교실에 제시하는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을 ‘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교사와 학생이 지금-여기-우리 삶을 함께 성찰하여 교실에서 생생한 주제를 개발하고 개발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출처: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과용도서의 이해’(통합교과 교사용지도서)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반 주제를 만들어요’ 활동으로, 여기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II-1] 참조). 이 부분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이 수업은 각 학급에서 마을을 다루기 위한 학급만의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하였다. 특히 여기서 예시한 주제들은 단원 학습의 모든 과정이 향해 갈 목적지 혹은 최종 활동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마을 단원의 하위 주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예시한

주제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고르거나 예시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급만의 주제를 정할 수 있다.

출처: 2-1 '마을 지도서', p. 477



[그림 II-1]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함께 만들어요'의 예(1-1, 사람들)

한편 플랫폼형 교과서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플랫폼)을 마련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영하여 단원 앞부분에 '우리 반 배움 지도' 코너를 두어 학습의 계획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II-2 참조).

교사들은 '배움 지도'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교실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생들의 흥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수업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재구성하기보다 수업이나 차시의 순서나 위치를 정할 때 활용하려는 인식을 보이기도 한다(양효준·정광순, 2024).



[그림 11-2]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배움 지도'의 예(1-1, 사람들)

마지막으로 모듈형 교과서란 교과서 한 단원을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한 다음, 이용자인 교사와 학생들이 필요와 의도에 따라 그 모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모듈은 통합교과 교과서 내의 요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국어나 수학 단원, 또는 범교과 주제 학습, 계기 교육 등의 학습 요소와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교과서 맨 앞부분에 제시된 '함께 골라요'로([그림 11-3] 참조), 모듈은 크게 놀이, 안전, 주제의 세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들은 '수업 묶음'을 '함께 만들어요'나 '배움 지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알고, 수업의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수업을 골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양효준·정광순, 2024).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묶음'으로 모듈형 교과서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학생들도 다소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류영규·박한숙,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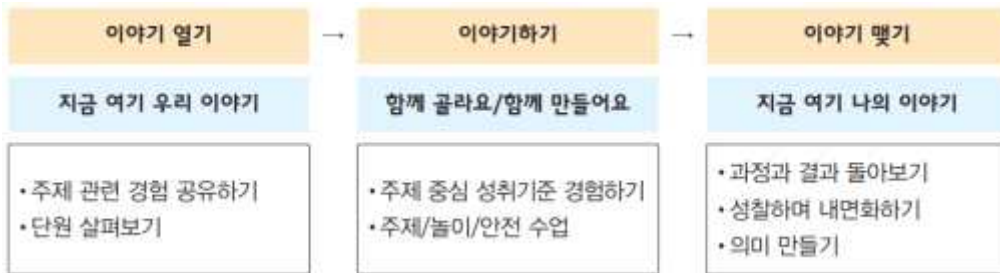


[그림 II-3]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함께 골라요’의 예(2-1, 마을)

두 번째로, ‘안전한 생활’의 통합은 2022 교육과정 개발 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제시되었던 ‘안전한 생활’을 폐지하고 이를 통합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일이 일상적이어야 하므로 통합교과 전체 주제 단원에서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 교육을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통합교과 교사용 지도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이해’ 중에서)이다. 이를 반영하여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안전한 생활’의 학습 요소를 단원 내 ‘안전’ 묶음(그림 II-3) 참조)에 반영하고 있다.

## 나.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교과서의 각 단원은 이야기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이야기 열기-이야기하기-이야기 맺기’의 형태로 구성된다.



[그림 II-4]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의 단원 모형

## 3. 2015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비교

### 가. 교과서 개발의 특징

2015 개정과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모두 교과서 개발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둘 다 공통된 특징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점은 ‘주제별 교과서’라는 점이다. 주제를 개발하는 절차는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수업에서 단편적인 지식 습득보다 통합교과의 특성을 잘 구현하여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그 외에 구성 차시 도입, 교과 역량 함양에 초점을 두어 개발하였고,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플랫폼형 교과서, 모듈형 교과서가 개발의 중점 사항이었다(표 II-4) 참조).

〈표 II-4〉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통합교과 교과서 개발의 특징 비교

2015 개정	2022 개정
<p>① 주제별 교과서: 주제를 중심으로 세 교과의 성취기준을 통합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② 구성 차시 도입: 교사가 학생의 요구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을 이수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③ 교과 역량 함양: 국가 수준에서 주도하는 핵심역량을 교과서 단원별로 하나씩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① 주제별 교과서: 지금까지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주제별 교과서를 개발해서 교실에 제시하는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을 ‘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교사와 학생이 지금-여기-우리 삶을 함께 성찰하여 교실에서 생생한 주제를 개발하고 개발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직접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p> <p>② 플랫폼형 교과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교과서에 마련해서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p> <p>③ 모듈형 교과서: 새 교과서에서는 한 단원을 구성하는 수업들을 몇 개의 묶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p>
<p>• 역할: 교과서는 ‘표준적인 수업 교재, 재구성할 수 있는 교재, 구성할 수 있는 교재’라고 볼 수 있다.</p>	

2015 개정과 2022 개정 통합교과의 교과서는 주제별로 개발되었기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수업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만 통합교과의 2015 개정 교과서는 수업 차시 순서의 재배열 정도였다면, 2022 개정 교과서는 교사와 더불어 학생도 적극적으로 수업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2015 개정 교과서는 ‘공부 게시판’에서 수업 차시를 어떻게 묶을지와 차시명을 무엇으로 할지 정도를 떠올려 보게 한다면, 2022 개정 교과서는 ‘배움지도’와 ‘수업만들기’에서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나. 교과서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통합교과 교과서는 이전 2015 개정 교육과정 때와 마

찬가지로 주제별 교과서로 개발되었다. 2015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에는 영역과 핵심개념이 각각 대주제와 소주제로 직접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단원명이 개발되었다.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제 개발권을 현장으로 이양하여 교과서 개발자나 수업 담당 교사에게 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과서 개발자가 영역과 핵심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개발한 것을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는데, 이는 1학년과 2학년 각각 8개로 총 16개가 있다. 1학년 1학기 주제로는 ‘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이 있고, 2학기는 ‘하루’, ‘약속’, ‘상상’, ‘이야기’가 개발되었다. 2학년 1학기는 주제로 ‘나’, ‘자연’, ‘마을’, ‘세계’가 있고, 2학기는 ‘계절’, ‘인물’, ‘물건’, ‘기억’이 개발되었다(〈표II-5〉 참조).

〈표 II-5〉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통합교과 교과서 주제 비교

교과서 단원명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교과서 주제 단원	
1학년	2학년	2015 개정		2022 개정		1학년	2학년
		핵심개념 (소주제)	영역 (대주제)	영역	핵심 아이디어		
학교에 가면	알쏭달쏭 나	학교와 친구 나	학교	1.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 까	1.1.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생활한다.	학교	나
도란도란 봄 동산	봄이 오면	봄맞이 봄 동산	봄		1.2.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사람들	자연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런 집 저런 집	가족과 친척 다양한 가족	가족	2.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 까	2.3. 우리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생활한다.	우리나라	마을
여름 나라	초록이의 여름 여행	여름맞이 여름 생활	여름		2.4. 우리는 삶의 공간을 넓히며 생활한다.	탐험	세계

내 이웃 이야기	동네 한 바퀴	우리 이웃 우리 동네	마을	3.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3.5. 우리는 여러 유형의 주기로 생활한다.	하루	계절
현규의 추석	가을아 어디 있니	가을맞이 가을 모습	가을		3.6.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생활한다.	약속	인물
여기는 우리나라	두근두근 세계 여행	우리나라 다른 나라	나라	4.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4.7. 우리는 경험하고 상상하고 만들며 생활한다.	상상	물건
우리의 겨울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겨울맞이 겨울나기	겨울		4.8.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며 생활한다.	이야기	기억
16개		16개	8개	4개	8개	16개	

#### 다. 교과서의 구성과 체제

교과서의 구성과 체제는 분책, 모형, 표지, 교과서 활용 안내, 차례, 단원 구성, 차시 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분책은 2015 개정 교과서는 학기당 두 권씩인 반면, 2022 개정 교과서는 두 권이 늘어나 학기당 네 권씩이다. 대신 한 권당 운영 권장 시기가 기존에 2개월에서 3개월이었던 것이 1개월로 줄어들었다. 학기당 다루는 책의 권수가 늘어나고 운영 권장 시기가 줄었기에 당연히 교과서에 제시된 수업의 수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희망하는 수업을 정하여 수업을 만들어 가기에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수업을 하도록 애초에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5 개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모두 학생과 교사가 차시 재구성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통합교과 교육과정은 성취기준 대강화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81개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이 48개로 줄어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과서는 단원마다 ‘함께 골라요’의 주제 20개, 놀이 8개, 안전 4개를 제시하고 있다. 2015 개정은 소주제별로 두 개의 단원으로 구분되며, 이때 한 단원 내의 ‘해박요’에서 약 20개 내외의 수업이 마련되어 있다. 만약 교사가 2022 개정 교과서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진행할 수업을 고르지 않고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수업을 다 한다면 놀이와 안전 수업에 해당하는 12차시만큼 수업을 더 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비록 개정 교육과정 연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서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수업 활동은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교과서에는 반드시 다뤄야 하는 필수 요소를 담고 선택 사항에 대한 부분은 교사용 지도서 또는 전자 저작물 등으로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교과서 개발에 참조한 모형은 둘 다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교과서의 차례에서 명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원래 모형의 단계명을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표현을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2015 개정 통합교과는 주제 학습 모형으로 ‘주제 만나기, 주제 학습하기, 주제 학습 마무리하기’를 ‘만나요, 해 박요, 마무리해요’로 나타냈고, 2022 개정 통합교과는 이야기 모형으로 ‘이야기 열기, 이야기하기, 이야기 맺기’를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 함께 골라요/함께 만들어요,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로 표현했다.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형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표현한 점은 좋지만,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의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와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는 단계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알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진다.

본격적으로 교과서에서 수업 내용을 다루기 전에 통합교과 교과서는 표지, 교과서 활용 안내, 차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통합교과의 2015 개정 교과서는 표지에 주제를 잘 나타내는 삽화를 제시하고 그 이상의 활동이 없는 반면, 2022 개정 교과서는 표지의 삽화와 관련하여 ‘같은 모양, 다른 그림, 상상해서 그려요!’ 활동을 표지 뒷장에 모든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교과서의 표지

인 만큼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반면, 2015 개정 교과서는 교과서 활용 안내를 교과서의 맨 앞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원별로 공통된 학습 형태와 교과와 시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표기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교과서 차례는 두 교과서 종류 모두 모형의 순서대로 관련 차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모형뿐만 아니라 주제, 놀이, 안전 세 분류로 나뉘어서 학습활동을 정리해 두었다. 이때 놀이와 안전의 경우 필수 이수 시간도 함께 명시해 두었다. 또한, 차례를 참고하여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다음장에 ‘우리 반 배움지도’를 배치하였다. 배움지도는 색칠하거나, 번호를 매기거나, 붙임딱지를 붙이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현장에서 활용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학급 단위로 배움지도를 구성한다면, 학생 개인 교과서보다는 학급 전시용으로 큰 크기의 배움지도를 교사용 지도서에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단원 구성을 보면 2015 개정과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8〉 참조). 다만 2015 개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모두 학생과 교사가 차시를 구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2015 개정 교과서는 단원의 ‘해 봐요’ 단계에서 3~4개의 수업 만들기 차시가 배정되어 있으며 차시명을 적는 빈칸이 있다. 그 전에 ‘만나요’에서 단원 읽기 활동을 할 때 활동 묶음의 이름을 쓰는 빈칸도 제시되어 있다. 2022 개정 교과서는 교과서의 가장 끝 부분에 ‘함께 만들어요’로 5개 정도의 수업 만들기 차시가 배정되어 있다. 이때 차시명을 적는 빈칸도 있고, 내용도 채우도록 되어 있는 점이 교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11-5]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약속’ 교과서의 보충 설명 및 말풍선

차시 구성을 보면 수업 활동이 주로 교과서 2쪽 이내로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세한 요소에서 2015 개정과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2015 개정 교과서는 교과와 시수, 차시명, 학습문제, 삽화(관련 그림, 작품 예시, 활동 방법 등), 말풍선, 보충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충 설명은 ‘이렇게 해요’, ‘~에서 지킬 일’, ‘이런 놀이도 있어요’, ‘준비해요’, ‘살펴보아요’ 등으로 나타내었다. 2022 개정 교과서는 주제/놀이/안전, 함께 골라요/함께 만들어요, 차시명, 학습문제, 삽화(관련 그림, 작품 예시, 활동 방법 등), 말풍선, 보충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보충 설명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놀이해요’, ‘이렇게도 놀아요’, ‘이렇게 약속해요’, ‘종이접기 약속’, ‘함께 다짐해요’, ‘이렇게 준비해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내었다.

차시 구성에서 말풍선과 보충 설명이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많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학년 2015 개정 교과서(봄, 여름), 2022 개정 교과서(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 분석 결과는 <표II-6>과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1학년 통합교과 교과서에 말풍선은 547번 제시되는데 주로 예상 답안, 학생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발문, 활동 방법 등을 나타낸다. [그림II-4]처럼 간혹 캐릭터를 활용해서 말풍선으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모든 교과서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할 때 교과서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역할과 소개를 교과서 활용 안내에서 한다면 능동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6> 2015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내 차시 구성 요소 등장 횟수

차시 구성 요소		개정 연도			
		2015 개정 교과서		2022 개정 교과서	
말풍선		120		547	
보충 설명	이렇게 만들어요	0	83	7	135
	이렇게 해요	69		40	
	이렇게 움직여요	0		28	
	이렇게 놀아요	0		42	
	이렇게 놀이해요	0		2	

	이렇게 약속해요	1		6
	이렇게도 놀아요 (이런 놀이도 있어요)	2		2
	이렇게도 해요	0		3
	종이접기 약속	0		1
	함께 다짐해요	0		1
	(이렇게) 준비해요	5		3
	살펴보아요 등 <sup>1)</sup>	6		0

마찬가지로 보충 설명도 135개로 2022 개정 교과서에서 많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놀이 수업이 따로 제시되는 2022 개정 교과서에서 ‘이렇게 움직여요’와 ‘이렇게 놀아요’가 보충 설명으로 자주 제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과서에 비해 보충 설명 항목이 다양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1) ‘살펴보아요’ 대신 무 짝을 띄워요, 가을풍경 사진전, 풍물놀이 악기, 얼음을 살펴봐요 등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도 이에 포함하여 횟수를 세었다.

〈표 11-7〉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통합교과 교과서의 구성과 체제 비교

구분	2015 개정	2022 개정
분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는 학기별로 두 권씩</li> <li>한 권당 운영 권장 시기 2개월에서 3개월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는 학기별로 네 권씩</li> <li>한 권당 운영 권장 시기 1개월 정도</li> </ul>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학습 모형 (주제 만나기 → 주제 학습하기 → 주제 학습 마무리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야기 모형 (이야기 열기 → 이야기하기 → 이야기 맺기)</li> </ul>
표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지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 ‘같은 모양, 다른 그림, 상상해서 그려요!’ 활동을 모든 책에서 제시함(1쪽).</li> </ul>
교과서 활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렇게 활용해요’로 교과서 활용 안내를 제공함(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나요’, ‘해 봐요’, ‘마무리해요’의 세 단계별 활동을 소개함.</li> <li>교과서 왼쪽 상단의 차시명 앞에 관련 교과와 시수를 각각 색과 조각으로 명시함, 교과서 오른쪽 상단에 기능과 역량을 명시함.</li> </ul> </li> </ul>	(없음)
차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관련 그림과 함께 소개함(1쪽).</li> <li>주제 학습 모형의 순서로 관련 차시를 구분하여 제시하나, 만나요’, ‘해 봐요’, ‘마무리해요’의 표현을 활용함(1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야기 모형의 순서로 관련 차시를 구분하여 제시하나,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 ‘함께 풀라요/함께 만들어요’,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의 표현을 활용함(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놀이/안전 묶음으로 제시</li> <li>필수 시간 명시(놀이: 8시간 필수, 안전: 4시간 필수)</li> </ul> </li> <li><b>우리 반 배움지도</b>(2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움지도는 색칠하거나, 번호를 매기거나, 붙임딱지를 붙임.</li> </ul> </li> </ul>

<p>단 원 구 성</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단원</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주제 만나기 (만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 읽기</li> <li>- 단원 읽기</li> <li>- 공부 게시판 만들기</li> </ul> <p>6쪽 내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주제 학습하기 (해 봐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슬·즐 2~3 교과를 통합한 표준적인 차시</li> <li>- 차시 재구성</li> <li>- 구성 차시(수업 만들기)</li> </ul> <p>차시별 2쪽 내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주제 학습 마무리하기 (마무리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조 및 마무리 활동</li> <li>- 단원 학습 성찰 및 종합</li> <li>-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li> </ul> <p>2쪽</p>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단원</p>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이야기 열기 (지금 여기 우리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관련 경험 공유하기</li> <li>- 단원 살펴보기</li> </ul> <p>2쪽 내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이야기하기 (함께 골라요/ 함께 만들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중심 성취기준 경험하기</li> <li>- 주제/놀이/안전</li> <li>- 차시 재구성</li> <li>- 구성 차시</li> </ul> <p>차시별 2쪽 내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이야기 맺기 (지금 여기 나의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과 결과 돌아보기</li> <li>- 성찰하여 내면화하기</li> <li>- 의미 만들기</li> </ul> <p>2쪽</p> </div> </div>
<p>차 시 수 업 구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와 시수, 차시명, 학습문제, 삽화(관련 그림, 작품 예시, 활동 방법 등), 말풍선, 보충 설명 등으로 구성됨.</li> <li>- 이때 보충 설명은 '이렇게 해요', '~에서 지킬 일', '이런 놀이도 있어요', '준비해요', '살펴보아요' 등으로 나타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놀이/안전, 함께 골라요/함께 만들어요, 차시명, 학습문제, 삽화(관련 그림, 작품 예시, 활동 방법 등), 말풍선, 보충 설명 등으로 구성됨.</li> <li>- 이때 보충 설명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도 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놀이해요', '이렇게도 놀아요', '이렇게 약속해요', '종이접기 약속', '함께 다짐해요', '이렇게 준비해요' 등으로 나타냄.</li> </ul>	

## 라. 학습문제 진술 방식

차시별 학습문제 진술 방식에 있어 2015 개정과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2015 개정 교과서는 학습문제를 차시명 아래에 주로 ‘~봅시다.’의 평서문으로 문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장은 명조체의 글꼴로 제시되기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간혹 차시명 아래가 아닌 오른쪽 하단에 제시되기도 하였다. 2022 개정 교과서는 주로 차시명 아래에 활동에 대한 안내 문장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 문장은 주로 볼릿 기호(•) 뒤에 기술되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차시명 아래 대신 다른 곳에 위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한 차시당 학습문제(안내 문장)의 개수, 문장 형태, 위치 등을 기준으로 1학년 2015 개정 교과서(봄, 여름), 2022 개정 교과서(학교, 사람들, 우리나라, 탐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문제(안내 문장)의 개수를 보면 2022 개정 교과서가 총 273개, 2015 개정 교과서는 총 168개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표II-10〉 참조). 이는 2022 개정 교과서에 놀이와 안전 수업이 그만큼 더 많이 배정되었기에 수업 활동 자체의 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차시별로 학습문제(안내 문장)를 1개 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2022 개정 교과서에서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문제(안내 문장)를 2~3개 제시하는 비율은 2015 개정 교과서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학습자에게 수업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문장의 개수를 충분히 논의하여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8〉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통합교과 교과서의 차시별 학습문제 개수 비교

연도	학습문제 1개	학습문제 2개	학습문제 3개	학습문제 4개	학습문제 5개	합
2015	88 (52.38%)	57 (33.93%)	20 (11.90%)	2 (1.19%)	1 (0.60%)	168
2022	168 (61.54%)	87 (31.87%)	16 (5.86%)	2 (0.73%)	0	273

학습문제(안내 문장)의 개수를 셀 때 동일한 위치에 문장이 여러 개 있다면 학습문

제 1개로 처리를 하였다. 예컨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의 1학년 1학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20개의 '함께 골라요-주제' 활동 중에 11개가 같은 위치에서 문장을 두 개씩 기술하였다. '무궁화 공원에 왔어요.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에요.', '한글 박물관에 갔어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처럼 안내 문장 앞에 맥락을 부여해 주는 부분이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장 형태는 2015 개정 교과서는 평서문, 2022 개정 교과서는 의문문으로 기술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표 II-9〉 참조).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하며 발문을 통해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 간, 학급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교과서에 어느 정도 지식이 기술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2 개정 교과서는 질문으로 안내 문장이 다수 제시되어 있어 학습 내용을 정리해 주는 역할의 문장도 제시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9〉 2015 개정과 2022 개정의 통합교과 교과서의 문장 형태 비교

연도	평서문	의문문	합
2015	251 (90.61%)	26 (9.39%)	277
2022	59 (14.53%)	347 (85.47%)	406

문장의 위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과서를 접할 때 학생들의 시선이 주로 왼쪽 상단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하단으로 가기에, 활동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 쓰는지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015 개정 교과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17번으로, 5번인 2022 개정 교과보다 더욱 잘 나타났다.



[그림 II-6]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 '가을' 교과서의 문장 위치(104-105쪽)

# III

## 외국의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

1. 분석의 배경과 방법
2.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
3. 핀란드의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
4. 소결



## 1. 분석의 배경과 방법

### 가. 해외의 「통합교과」

우리나라와 같이 초등 저학년에 통합교과를 운영하는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일본과 중국이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모두 국가교육과정의 역할과 비중이 크며, 이에 따라 의무 교육과정으로서 단위 학교에 주어지는 교과 교육과정의 구성과 편제 측면에서도 큰 유사점을 갖는다(이한나, 2014). 특히, 한, 중, 일 모두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과가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정 체제로 교과서를 발행하지만 일본과 중국에서는 검정 체제로 발행한다는 점과 우리나라 통합교과의 모교과는 사회, 과학, 도덕, 음악, 미술, 체육이지만 일본에서는 사회와 과학을, 중국에서는 도덕과 사회를 모교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점을 갖는다.

한편, 핀란드에서도 통합교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에 따라 통합교과 교과서 혹은 교과별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모든 교과서는 검정 발행 체제로 운영되며, 출판사에 따라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통합교과서를 제작하거나, 1~2학년은 통합 중심, 3학년부터는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제작하기도 한다.

### 나.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핀란드의 통합교과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각 나라의 통합교과 교과서 발행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는 생활과 교과서로 불리며 여러 출판사에서 1~2학년의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다. 출판사마다 생활과 교과서의 명칭이 상이하며 학기별로 편성하여 1학기는 '상', 2학기는 '하'로 구분하고 있다.<sup>2)</sup> 예컨대, 도쿄서적 출판사에서는 '새로운 생활'로, 대일

2) 그러나 교사 교육과정의 유연성에 따라 1학기의 교과서를 1년 동안 사용할 수도 있다.

본도서 출판사에서는 ‘즐거운 생활’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핀란드의 통합교과 교과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검정 체제로 발행하고 있으며, 출판사에 따라 통합 방식 및 주제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Sanoma Pro’ 출판사에서는 초등 각 학년별(1~6학년)로 ‘PISARA’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사회, 과학, 환경을 통합하여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통합교과 교과서의 경우, 도쿄 서적의 「새로운 생활」 1학년 1학기 교과서와 핀란드 통합교과 교과서의 경우, ‘Sanoma Pro’의 「PISARA」 1학년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의 도쿄서적 교과서로 선택한 까닭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종의 통합교과 교과서 중 채택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며(이하나, 2014), 핀란드의 ‘Sanoma Pro’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는 전 학년에 걸쳐 통합교과 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통합의 양상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서적'의 「새로운 생활」(상) 1학년 1학기	핀란드 'Sanoma Pro'의 「PISARA 1」 1학년
	

[그림 III-1] 일본과 핀란드의 통합교과 교과서

#### 다. 분석의 초점

이 장에서는 다음의 초점을 중심으로 두 국가의 통합교과 교과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교과서의 구성 체제이다. 한 권의 교과서는 성취기준, 학습자 수준과 흥미, 교수·학습의 효과성 및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짜임새 있게 구성된다. 한국, 일본, 핀란드의 통합교과 교과서에서 각각 어떤 구성 체제를 취하고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지향하고자 하는 교수·학습의 방식이나 목표를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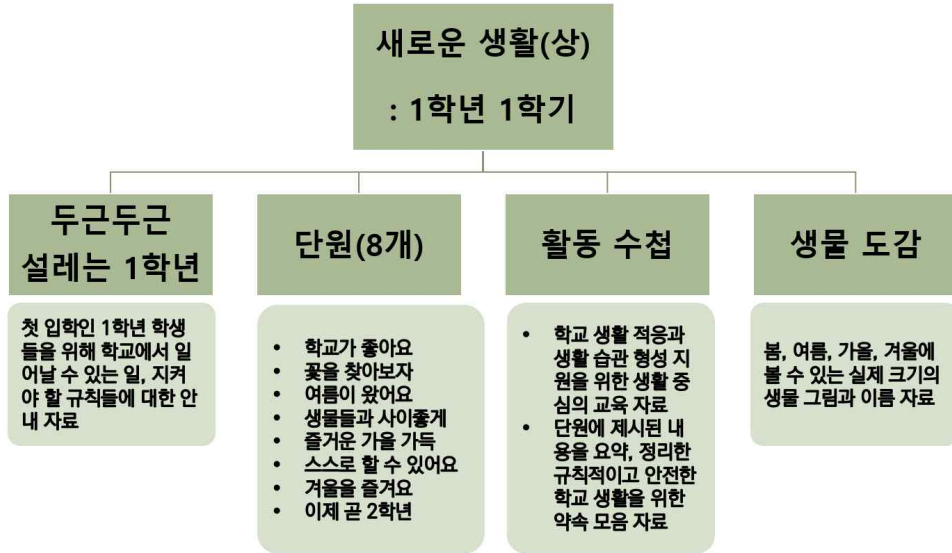
두 번째는 단원 구성 방식을 단원 간 연계성과 단원 내 응집성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교과서의 한 단원은 학습자가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련의 학습 과정을 여러 차시에 걸쳐 구체화해 놓은 형태이다(이한나, 2014). 이에 따라 한 단원은 하나의 중심 내용을 기준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각 단원은 통합교과의 성격이나 본질은 유지한 채 성취기준에 따른 특색이 잘 드러나야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각 단원의 외형과 내용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차시별 학습 활동의 제시 방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각 차시에서 제공하는 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매 시간 직접 접하며 학습하는 구체적인 활동이다. 차시마다 어떤 학습 활동을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나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 측면과 연계하여 차시별 학습 활동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

### 가. 교과서 구성 체제

일본 통합교과 교과서인 새로운 생활(상)은 [그림 III-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Ⅲ-2] 일본 통합교과 교과서의 구성 체제

먼저, ‘두근두근 설레는 1학년’은 처음 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평화롭고, 규칙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팝업북의 형태로 제시한 안내 자료이다. 예를 들어, 그림과 함께 ‘즐겁게 놀기 위해 규칙을 지키고 양보한다.’, ‘자연과 친해지고 그 아름다움이나 신기함을 알아차린다.’, ‘느낀 것과 생각한 것을 말 등으로 표현한다.’와 같은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며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이나 말과 행동을 안내하고 있다. 1학년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고려하여 글보다 사진과 그림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그림 Ⅲ-3] 참조), QR 코드를 함께 제시하여 관련 디지털 콘텐츠(영상이나 활동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를 위한 안내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가정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보호자 여러분께,

초등학교 입학에 즈음하여, 유치원 등에서의 "유아기 말까지 기르길 바라는 모습"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생활로의 원활한 연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재는 입학 초기 아동의 실제 상황에 맞추어, "스타트 커리큘럼"을 반영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교재를 활용하여 자녀의 학교생활 모습을 이야기 주제로 삼거나, 학교에서의 배움을 가정으로 연결하는 등의 기회를 통해 이해를 깊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III-3] 두근두근 설레는 1학년(6~7쪽)

‘두근두근 설레는 1학년’은 1학년 학습자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교과서 ‘학교(1학년 1학기)’와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한 권의 책 분량으로 구성하여 안 전, 놀이, 주제의 세부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한 것에 비해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단원 이외의 교수·학습 자료로 구성하여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안내, 지침의 성격을 띠는 내용으로 제시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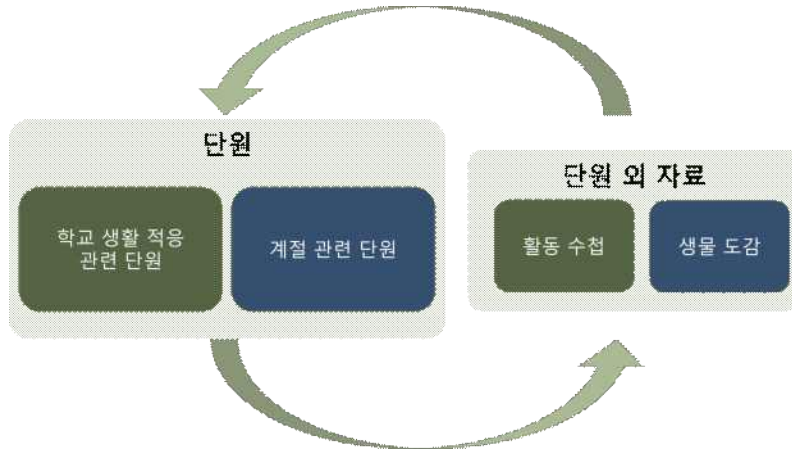
다음으로 일본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한 학기에 8개의 단원을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각 단원은 계절의 흐름을 반영하여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절에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계절 단원 사이에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단원으로 구

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통합교과 교과서와 유사한 양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1학기에 모든 계절 단원을 다 다룬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세 번째로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마지막 단원 다음에 ‘활동 수첩’을 제시하고 있다. 이 활동 수첩은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 중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학습자가 건강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시한 일종의 약속 자료의 성격을 띤다. 예컨대, ‘건강하게 생활하자’ 제목의 활동 수첩에서는 매일 해야 하는 것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아침밥 먹기’, ‘양치질 및 샤워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고, 손 씻는 방법을 7가지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자료는 그림 아래 글을 작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글을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자료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생물 도감’을 각 계절마다 1쪽씩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봄과 관련된 생물 도감에서는 봄에 피는 꽃이나 풀을 그림 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겨울과 관련한 생물 도감에서는 땅 속에 자고 있는 도마뱀이나 도토리, 쥐며느리나 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모든 그림 자료가 실제 생물의 크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생물을 보거나 만지지 못하더라도 좀 더 생동감 있게 생물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계절과 관련한 단원에서 생물을 학습할 때 ‘생물 도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의 문구를 통해 이 생물 도감을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단원 학습과 생물 도감 활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특징을 고려하여 일본 통합교과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종합·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다.



[그림 III-4] 일본 통합교과 교과서 구성 체제

### 나. 단원 구성 방식

단원 구성 방식은 단원 간 연계성과 단원 내 응집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단원 간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새로운 생활」(상)의 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どきどき わくわく 1ねんせい	1
*	がっこう だいすき	14
*	はなを さかせよう	26
●	なつが やってきた	38
●	いきもの と なかよし	52
★	たのしい あき いっぱい	62
★	じぶんで できるよ	78
★	ふゆを たのしもう	86
★	もう すぐ 2ねんせい	102
●	かつどう べんりてちょう	113
●	ほんとうのおおきさ いきものずかん	121

- 학교가 좋아요
- 꽃을 찾아 보자
- 여름이 왔어요
- 생물들과 사이좋게
- 즐거운 가을이 가득
- 스스로 할 수 있어요
- 겨울을 즐겨요
- 이제 곧 2학년

[그림 III-5] 「새로운 생활」(상) 목차

각 단원의 성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크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단원과 계절과 관련한 단원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단원은 ‘학교가 좋아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제 곧 2학년’으로 볼 수 있고, 계절과 관련한 단원은 ‘꽃을 찾아 보자’, ‘여름이 왔어요’, ‘생물들과 사이좋게’, ‘즐거운 가을이 가득’, ‘겨울을 즐겨요’로 볼 수 있다.

먼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단원은 초반부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학습 내용이 심화되고, 주제의 범위가 점차 초점화되고, 학습자의 주체성이나 자율성이 점점 강조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 학교생활 적응 단원의 내용 구성

학교가 좋아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제 곧 2학년
학교에 있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집에서의 생활을 살펴보자	새로운 1학년을 초대해 보자
학교에서 발견한 것을 전해보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초대한 일을 서로 이야기해 보자
모두 함께 통학로를 걸어보자	앞으로도 계속해 보자	1년을 되돌아보자
-	-	자라난 나 자신을 돌아보자

예컨대 교과서의 초반부에 제시되는 ‘학교가 좋아요’ 단원은 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교내와 교외를 살펴보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후반부에 제시되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단원에서는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접 해 보고, 이를 습관화·내면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제시되는 ‘이제 곧 2학년’ 단원은 자신의 행동을 메타적으로 성찰해 보도록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세 단원은 1학년 학습자가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을 점차 심화·초점화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계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가 교사로부터 안내, 도움 받은 일을 수행해

보는 활동에서 점진적으로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해 보는 활동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단원에서 제시하는 주제도 포괄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구체화·초점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사고의 깊이도 점차 심화·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계절과 관련한 단원도 사계절의 특징을 중심으로 잘 연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교생활 적응 단원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계절 관련한 단원은 각 단원마다 해당 계절에만 볼 수 있는 모습, 생물, 환경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직접 몸으로 계절을 경험하도록 구성하고 있어 병렬적으로 연계된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단원에서는 단원 내용 구성 방식을 유사하게 제시함으로써 계절 단원 학습을 일관성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익숙한 흐름 속에서 계절별 특징을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한 이해와 탐구의 깊이를 점차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두 번째로 단원 내 응집성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단원 내 응집성은 단원을 구성하는 차시나 학습 내용이 분절적이지 않고, 단원 주제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모든 차시 학습의 목표가 단원의 전체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나아가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계절 관련 단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꽃을 피워 보자’ 단원에서는 단원의 목표인 꽃을 피우기 위해 씨앗을 심고, 새싹을 피우고, 꽃을 피워 다시 씨앗을 모아 보는 활동을 차시마다 제시함으로써 식물을 기르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 차시가 다음 차시의 활동에 연결되고 차시 학습을 종합하여 종국적으로 단원의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을 통해 단원 내 응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름이 왔어요’와 ‘즐거운 가을이 가득’ 단원에서도 주변 환경에서 계절의 모습을 확인하고, 계절의 특징을 몸으로 체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타인과 소통하고, 계절과 관련된 놀이를 하도록 차시를 구성함으로써 각 계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Ⅲ-2〉 계절 관련 단원의 내용 구성

꽃을 피워 보자	여름이 왔어요	즐거운 가을이 가득
씨앗을 심어 보자	운동장에서 여름을 찾아보자	운동장에서 가을을 찾아보자
꽃을 키워 보자	공원에서 여름을 찾아보자	공원에서 가을을 찾아보자
꽃의 상태를 전해 보자	물로 놀아보자	나뭇잎이나 열매로 놀아보자
관찰 도감	비 온 뒤의 운동장을 탐험해 보자	가을의 일을 전해보자
씨앗을 모아 보자	여름에 대해 전해 보자	가을 장난감을 만들어보자
-	여름 놀이 도감	함께 놀아보자
-	-	가을 장난감 도감

#### 다. 차시별 학습 활동의 제시 방식

일본 통합교과 교과서의 차시별 학습 활동 제시 방식은 내용과 형식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 행동 영역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형식면에서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 별도의 쓰기 학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먼저, 내용면에서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는 지식, 기능, 태도, 행동의 영역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즐거운 가을이 가득’ 단원에서는 가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에 대한 지식적 이해, 그리고 이를 탐구할 수 있는 기능, 자신이 탐구한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능과 행동, 일상 생활에서 가을을 탐구할 때 갖춰야 할 태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었다. ‘생물과 사이좋게 지내요’ 단원에서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곤충에 대한 지식적 이해, 여러 가지 곤충을 상세하게 탐구하기 위한 기능, 직접 동물을 돌보는 행동과 이를 행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올바른 태도를 여러 차시에 걸쳐 제시하고 있었다.

둘째,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각 차시마다 학습목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들을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단원 중 집에서 생활을 살펴보는 차시에서는 시간대별로 집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었다(그림 III-6 참조).



[그림 III-6]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단원(80~81쪽)

상세하게 표현된 그림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과 비교해 봄으로써 일상 속 행동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81쪽 오른쪽 하단).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인식하고, 보다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셋째, 형식면에서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는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생물과 사이좋게’ 단원에서는 ‘생물도감’이라는 별도의 차시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양한 곤충을 기르는 방법과 가을에 볼 수 있는 곤충, 그리고 그 곤충들의 울음소리들을 학습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령메뚜기’를 키우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초령메뚜기를 키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림 자료, 같은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다른 메뚜기에 대한 사진 자료, 초령메뚜기의 사료 3가지에 대

한 그림 및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58쪽 상단).



[그림 III-7] '생물과 사이좋게' 단원(58~59쪽)

아울러 가을에 우는 벌레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음원 파일과 연결된 QR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시 방식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에 대한 몰입도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사진과 소리 등의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익숙하지 않은 상황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을 지닌다.

넷째,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학습자에게 별도의 쓰기 활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일본의 1학년용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아직 자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직접 글을 작성하는 활동은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차시에서는 비교적 많은 문자가 등장하기도 하나, 모든 문자에 대응하는 사진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의 자국어 학습보다는 통합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핀란드의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

#### 가. 교과서 구성 체제

핀란드의 통합교과 교과서는 8개의 단원이 병렬적으로 나열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마다 말미에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 차시의 명칭은 5개 단어의 앞 글자를 딴 'TIKKA'이다. 각 단어는 Tutkin, ihmettelen, keksin, kokeilen, ajattelen이며, 이는 각각 조사하고, 놀라고, 생각해 내고, 실험하고, 사고한다고 번역할 수 있다. 이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평서문 형태의 문장과 질문인 의문문 형태의 문장을 섞어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즐거운 야외 활동' 주제에서는 '야외 활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요?', '다양한 놀이와 게임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운동장에 변화가 필요할까요?'와 같은 질문과 평서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한 내용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핀란드 통합교과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III-8]과 같다.



[그림 III-8] PISARA 1 교과서 구성 체제

단원의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학교생활, 일상생활, 자연환경 학습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1단원인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에서는 왜 학교에 가야 하는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3단원 ‘건강하게 살아요’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건강한 식습관과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 및 필요성,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 등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생활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학습한다. 5단원 ‘겨울 관찰’, 8단원 ‘봄’ 단원에서는 계절의 특징과 각 계절에 볼 수 있는 식물, 동물 등에 대해서 배운다. 이러한 단원 구성은 학교생활 적응 관련 단원과 계절 관련 단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와 유사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두 통합교과 교과서 모두 1학년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주변을 관찰하며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각 단원의 주제와 관련 있는 다양한 시각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봄에 볼 수 있는 식물의 그림이나 다양한 교통 표지판의 사례들을 그림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해당 내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생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나. 단원 구성 방식

단원의 구성 방식은 단원 간 연계성과 단원 내 응집성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단원 간 연계성 살펴보기 위해 PISARA 1 교과서의 단원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3〉 핀란드 PISARA 1 교과서 목차

<p>I.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는 학생이에요</li> <li>2. 안전한 등굣길</li> <li>3. 함께 행동해요</li> </ol> <p>TIKKA 나는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해 내고, 시도하고, 생각해요!</p> <p>II. 주변 환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환경을 관찰해요</li> <li>5. 살아있는 것과 무생물 자연</li> <li>6. 주변의 동물들</li> <li>7. 주변의 나무들</li> <li>8. 가을이 와요</li> </ol> <p>TIKKA 나는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해 내고, 시도하고, 생각해요!</p> <p>III. 건강하게 살아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9. 나는 움직여요</li> <li>10. 건강하게 먹어요</li> <li>11. 손을 씻어요</li> <li>12. 검정에 대해 배워요</li> </ol> <p>TIKKA 나는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해 내고, 시도하고, 생각해요!</p> <p>IV. 핀란드에서의 삶</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핀란드에서 살아요</li> <li>14. 핀란드의 풍경</li> <li>15. 핀란드의 사람들</li> </ol> <p>TIKKA 나는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해 내고, 시도하고, 생각해요!</p>	<p>V. 겨울 관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 겨울에</li> <li>17. 겨울의 동물들</li> <li>18. 겨울의 새들</li> </ol> <p>TIKKA 나는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해 내고, 시도하고, 생각해요!</p> <p>VI. 우리 탐구자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탐구란 무엇인가요?</li> <li>20. 물을 탐구해요</li> <li>21. 공기를 탐구해요</li> <li>22. 날씨를 탐구해요</li> <li>23. 생각해 내고 시도해요</li> </ol> <p>TIKKA 나는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해 내고, 시도하고, 생각해요!</p> <p>VII. 일상생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4. 안전한 집</li> <li>25. 다양한 직업</li> <li>26. 책임 있는 선택</li> </ol> <p>TIKKA 나는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해 내고, 시도하고, 생각해요!</p> <p>VIII.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7. 봄이 와요</li> <li>28. 봄의 식물들</li> <li>29. 봄의 동물들</li> <li>30. 소풍을 가요</li> <li>31. 여름이 와요</li> </ol> <p>TIKKA 나는 탐구하고, 궁금해하고, 생각해 내고, 시도하고, 생각해요!</p>
---	--

각 단원의 주제를 기준으로 연계성을 확인해 보면 크게 학교생활 학습과 관련한 단원(I, VI 단원), 일상생활 학습과 관련한 단원(III, VII 단원), 자연환경 학습과 관련한 단원(II, V, VIII 단원), 기타(IV 단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핀란드 교과서는 비슷한 주제의 단원들이 병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양상을 띠고 있다. 예컨대, 학교생활과 관련한 단원인 I, VI 단원에서는 각각 학교생활을 위

한 기본적인 규칙(I 단원)과 탐구학습의 의미와 방법(VI 단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학교생활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규칙에 관한 내용과 학습 방법에 관한 내용을 나란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평적 연계 양상을 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 학습과 관련한 단원에서는 단원의 주제가 점차 구체화·상세화되는 방향으로 연계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I 단원(주변 환경)은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고,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며, 주변의 생물과 나무를 관찰하는 차시들로 구성되어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모습과 관찰 방법을 다루고 있다면, V, VIII 단원에서는 각각 겨울과 봄의 계절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 계절에 살펴볼 수 있는 동식물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주제에서 구체화, 초점화된 주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상생활 학습과 관련한 단원은 다른 단원들에 비해 단원 간 연계성이 강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III 단원(건강하게 살아야)에서는 청결과 신체 건강, 마음 건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VIII 단원(일상생활)에서는 집에서의 올바른 생활 방법, 다양한 직업에 관한 정보, 책임 있는 선택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단원 모두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생활하며 성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단원 간 주제의 수평적 연결이나 내용의 심화·확장을 위한 수직적 연계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습자에게는 개별 활동이 단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배운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IV 단원 '핀란드에서의 삶'은 핀란드의 지리적·문화적·환경적 정보를 중심으로 각 차시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 일상생활, 자연환경 등 다른 단원의 주제와 뚜렷한 연계성을 가지지 못한 채 사회과 학습의 일부로 제시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원 내 응집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단원은 단원 목표를 중심으로 각 차시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조직되어 있으나, 일부 단원에서는 그렇지 못한 양상을 띠고 있다.

III 단원은 건강한 생활을 목표로 구성된 단원이다. 각 차시에서는 신체 활동, 올바른 식습관, 개인 위생, 마음 건강 등 건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즉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을 차시 학습으로 구성함으로써 차시 간 연결성과 단원 내 응집성이 비교적 잘 짜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VIII 단원은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며, 각 차시는 가정 내 안전한 생활 방법, 다양한 직업 세계, 책임 있는 선택의 중요성 등을 학습 내용으로 다룬다. 그러나 이 단원은 차시 간 주제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고, 단원 목표와 차시 목표 간의 유기적인 연결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울러 단원 전체의 주제가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차시별로 학습의 초점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경향도 나타난다.

#### 다. 차시별 학습 활동의 제시 방식

핀란드 통합교과 교과서의 차시별 학습 활동 제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각 차시마다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활동을 유도하거나 제안하기보다 정보 전달 목적의 평서형 문장들이 즉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V단원의 한 차시에서는 ‘겨울의 동물들’을 주제로 한 차시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겨울의 동물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이와 관련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합교과 교과서가 1학년 학습자의 언어 발달 수준을 고려해 비교적 적은 양의 문자 텍스트를 제시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핀란드의 통합교과 교과서에 제시된 문자 텍스트의 양과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며, 교과서의 정보 전달 방식이 시각 자료보다는 언어적 표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III-9] 핀란드 PISARA 1 V 단원(44~45쪽/번역은 연구자)

둘째, 매 차시마다 이해 점검을 위한 질문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차시의 오른쪽 하단에는 ‘과제’란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학생이 차시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IV 단원(핀란드에서의 삶)에서는 ‘13. 나는 핀란드에 살아요’ 차시 학습을 한 이후에 ‘핀란드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독립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의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차시 학습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핀란드에 관해 궁금한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반 친구나 어른에게 질문해 보세요.’와 같은 과제를 통해 배운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VII 단원(일상생활)에서도 ‘24. 안전한 집’ 차시 학습 이후 ‘사고가 났을 때는 몇 번으로 전화하나요?’와 같이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다음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친구가 자전거에서 넘어졌어요 b) 집 안에서 불이 났어요’와 같이 적용을 위한 질문을 제시하고, ‘학교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사물이나 장소를 찾아보세요’와 같이 일상생활로 전이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이해를 점검하고 학습 내용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림 III-10] 핀란드 PISARA 1 VII 단원(62~63쪽)

셋째, 지식, 기능, 태도 영역 중 지식 영역의 학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차시에서는 차시의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에게 지식 위주의 학습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능이나 정의적 측면의 학습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V 단원(겨울 관찰)에서는 겨울의 특징, 겨울에 볼 수 있는 동물의 특징, 겨울에 볼 수 있는 새의 특징을 각각의 차시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주제에 관한 정보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갖춰야 할 태도나 형성해야 할 가치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VIII 단원(봄)은 총 5차시 중 '30. 소풍을 떠나요' 차시에서 소풍에 참여할 때의 올바른 태도(다른 사람의 마당이나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소음을 내면 안 된다, 동식물을 해치면 안 된다)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차시에서는 봄과 관련한 지식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처럼 지식 중심의 구성은 기초적인 정보 습득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통합교과의 성격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능 및 태도 영역에 대한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 4. 소결

외국의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 결과, 일본과 핀란드 모두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합교과를 운영하며 생활 경험과 자연 탐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었다. 일본은 계절과 학교생활 적응을 바탕으로 한 단원 구성, 시청각 자료 중심의 제시, 체험과 성찰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였고, 핀란드는 TIKKA(탐구, 놀람, 발견, 실험, 사고) 과정을 기반으로 지식 중심 학습을 강화하면서도 질문과 과제를 통해 생활 적용을 유도하였다. 두 나라 모두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 통합적이고 경험 중심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본과 핀란드의 사례는 통합교과의 핵심이 학생의 실제 경험과 생활 맥락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본은 생활 속에서 익힌 습관을 점차 심화해 가는 위계적 구성을 통해 학생 주도성을 길러주고, 핀란드는 탐구 기반 접근으로 지식 습득을 넘어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움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일본의 교과서가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실습 중심 활동을 활용하는 반면, 핀란드는 텍스트와 개념 학습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차이를 보였다. 이 대비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중요한 통찰을 준다. 특히, 디지털 자료와 연계된 활동(예: QR 코드 활용), 시각적 자료의 적극적 사용, 그리고 생활 속 실천 과제를 통한 확장은 우리나라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에도 적용 가능한 전략이다.

셋째, 두 나라 교과서 모두 질문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학습 내용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성찰 능력을 키우는 교육적 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에서도 교사는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적절히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탐구·공유·성찰하는 학습 경험을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합교과가 추구하는 전인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일본과 핀란드 교과서는 모두 한 단원 내에서 차시 간의 연계가 뚜렷하며, 특히 일본은 단원 간 주제와 활동이 긴밀하게 이어져 학습 경험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통합교과 교과서는 차시와 단원 활동이 분절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강해 학습의 흐름이 단절되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 경험을 보다 심화·확장할 수 있도록 차시와 단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설계의 재고가 필요하다.



# IV

##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요구 조사

1. 교사 인터뷰
2. 교사 설문 조사
3. 소결



## 1. 교사 인터뷰

### 가. 연구 방법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교사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현직 초등교사 6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통합교과를 지도한 경험이 최소 3년 이상으로, 2015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모두 지도해 본 경험이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IV-1〉 교사 인터뷰 참여자 정보

참여자	지역	교직경력	통합교과 교육경험	비고
교사A	서울	24	14	• 2022 개정 지도 2년차
교사B	경기	12	6	-
교사C	전남	20	5	• 2022 개정 지도 2년차
교사D	서울	23	3	• 대학원에서 '통합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 강의
교사E	서울	15	5	• 2022 개정 지도 1년차
교사F	서울	8	3	• 2022 개정 지도 1년

연구진은 먼저 참여자들에게 사전 질문지를 발송하여 서면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 회의(Zoom)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서면 인터뷰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IV-2〉 인터뷰 문항(서면)

범주	문항
I. 통합교과 교육 경험	1. 교직생활 동안 초등 1-2학년 통합교과를 총 몇 년 정도 가르치셨습니까?

<p>II. 2022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선생님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떠합니까?</li> <li>2. 교과서 내용이나 활동 요소 중 가장 만족스럽지 못했던 단위 또는 활동의 예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어떠합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li> <li>3. (반대로) 교과서 내용이나 활동 요소 중 가장 잘 구성되었다고 느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4. 교과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행 정도는 어떠합니까? 다수의 아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교과서 활동을 수행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쉽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편입니까?</li> <li>5.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글깨치기 수준이 낮으면 통합교과 교과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1) 선생님의 교실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2) 그럴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수업을 진행하십니까?</li> <li>6. 학생들이 통합교과 교과서로 수업 활동을 함에 있어 교과서 내에 추가적으로 마련되면 좋을 요소들이 있습니까? 다른 교과에 예나 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수업했던 활동지 등을 참조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안 부탁드립니다.</li> </ol>
<p>III. 2015 교과서와의 비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5 초등 통합교과 교과서로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2015 통합교과 교과서와의 비교가 가능하신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 교과서와 2022 통합교과 교과서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어느 교과서가 더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까?</li> </ol>
<p>IV. 전반적인 개선 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앞서 질문드린 내용 외에 통합교과 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li> </ol>

## 나. 인터뷰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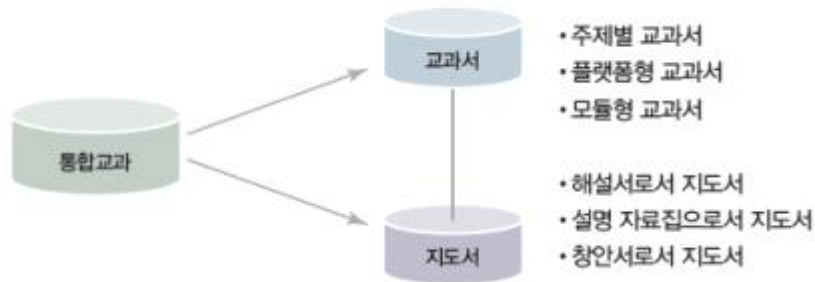
### 1) 학습량 조정의 필요성

서면 응답과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통합교과 교과서 학습량에 대한 조정(축소)을 제안하였다. 교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수업 차시가 많고, 하나의 차시 안에도 학습 내용이 많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주어진 활동이 한 차시(40분) 안에 끝나지

않아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또 재구성하거나 생략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교사A) 교사 입장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소화하기가 조금 빠듯하게 느껴져(이하 생략)
- (교사B) 주제별 주어진 활동이 많고, 학습 분량도 많고 주어진 활동이 많아 벅찰 때가 있습니다.
- (교사C) 통합교과 전체적인 지도 분량이 많다. 20~30% 의도적으로 많은 분량이 담겼다고 연수를 들었다. (중략) 학생들 또한 교과서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거 왜 안 해요?, 이거 언제 해요?”를 물어본다. 눈에 보이는 걸 안 하는 교사가 되는 기분이라 어쩔 수 없이 교과서 내용을 조금이라도 읽고 했던 활동과 엮어서 설명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 중으로 고생하는 것 같다. 학습 시간이 두 배로 드는 기분이다, 20%의 내용을 확대해서 답을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차시 내용을 답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이 학습자 주도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수업 경험을 확산하기 위해 교과서를 주제별·플랫폼형·모듈형 교과서로 개발하였다(교육부, 2022; 13)<sup>3)</sup>.



[그림 IV-1]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용 도서의 특징(교육부, 2022; 13)

총 8개의 주제로 구분되어 있는 교과서에는 각각 주제 수업 20개, 놀이 차시 8개, 안전 차시 4개, 주제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차시 각 1개,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수업 5개 등 총 39개 단위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1~2학년군

3) 교육부(2022).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1-1. 지학사.

통합교과의 최소 수업 시수는 바른 생활 144시간, 슬기로운 생활 224시간, 즐거운 생활 400시간으로 총 768시간이며 총 16개의 주제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수업의 개수는 624개이다. 지도서에는 모든 수업의 시간은 40분, 80분, 120분 등으로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하며, 주제 수업은 단원의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고, 주제와 안전 수업은 ‘필수’로 각각 8차시와 4차시를 지도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비록 주제 수업은 교사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 때문에 부담을 느껴 모든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 보니 하나의 수업 시간이 40분을 넘어가게 되었을 때 수업을 모두 진행하기에 수업 확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개발 의도와 재구성에 대한 현장의 준비 정도가 달라 생기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역량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평가	기타	
2015 개정	배 공동체 자기 관리 의사소통 감 창의적 사고 지식 정보 처리 의사소통 심 심미적 감성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	배 실천 활동 감 탐구 활동 감 표현 활동	[총괄 목표] 추구하는 인간상 [하위 목표] ① 지식 제시 ② 기능 제시 ③ 역량 제시	1. 학교	1.1. 학교와 친구 1.2. 나	배 17개 감 32개 심 32개 = 81개	성취 기준별 평가 초점 안내
				2. 봄	2.3. 봄맞이 2.4. 봄동산		
				3. 가족	3.5. 가족과 친척 3.6. 다양한 가족		
				4. 여름	4.7. 여름 맞이 4.8. 여름 생활		
				5. 마을	5.9. 우리 이웃 5.10. 우리 동네		
				6. 가을	6.11. 가을 맞이 6.12. 가을 모습		
				7. 나라	7.13. 우리나라 7.14. 다른 나라		
				8. 겨울	8.15. 겨울 맞이 8.16. 겨울나기		
				주제(8)	소주제(16)		
2022 개정	배 실천 경험 감 탐구 경험 감 놀이 경험	[총괄 목표] 추구하는 삶(역량) [하위 목표] ① (지금) 생활하는 모습 ② (여기) 경험 과정에서 얻는 것 ③ (우리 삶) 지향하는 공동체의 삶	영역(4)	핵심 아이디어(8)	배 16개 감 16개 심 16개 = 48개	영역별 평가 초점 안내	
			1.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1.1.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생활한다. 1.2.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2.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	2.3. 우리는 여러 공동체 속에서 생활한다. 2.4. 우리는 삶의 공간을 넓히며 생활한다.			
			3.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3.5. 우리는 여러 유형의 주기로 생활한다. 3.6.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생활한다.			
			4.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4.7. 우리는 경험하고 상상하고 만들어 생활한다. 4.8.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며 생활한다.			
					1. 입학 초기 적응 활동과 증폭 문제 해결 및 연계 강화 2. 안전한 생활 통합 3. 신체 활동 강화		

[그림 IV-2] 2015-2022 개정 통합교과 신규대조표(교육부, 2022; 14)

[그림 IV-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와 비교하여 2022 개정 통합교과는 성취기준의 개수가 81개에서 48개로 줄었음에도 현장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은 학습 분량의 과다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지도서에는 한 달 동안 하나의 주제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부 교사는 어떤 주제는 수업 분량이 너무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주제도 있어서 이를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 (교사 C) 어떤 교과서(주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기가 더 힘들고 좀 어떤 단원(주제)은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데, 어떤 주제는 그 한 달이 너무나 지루하고 할 거 없고 이런 분량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생략)

종합해보면, 통합교과의 성취기준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교사들에게 수업 선택의 폭을 늘리고자 교과서에 주제 수업 내용을 많이 제시하면서 오히려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업만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다는 지도서의 안내와 달리 이를 현장에 반영하는 것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보다는 한 번씩 경험하고 넘어가는 피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현장의 우려가 있었다.

## 2) 난도 조정의 필요성

교사들은 대체로 2022 개정 통합교과의 교과서 활동이 학습자들에게 다소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에 교과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교사들은 2022 통합교과 교과서에 나온 일부 종이접기, 노래, 놀이 활동 등과 학습 공간이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으며 지역 차이가 잘 반영되어 있지 않은 주제도 있어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종이접기 활동이 학생들의 수준이 맞지 않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부록으로 제공하거나 교과서에 신는 노래의 경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더욱 쉬운 가사와 멜로디로 구성된 음악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하였다.

- (교사A) '(1학년 2학기 <하루>)하루 중 최고'(48~49쪽)는 시계를 종이접기로 만들고 하루 중 중요한 시각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종이접기는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도움 자료에 채색 등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손목시계가 수록되면

좋겠습니다.

- (교사B) 노래와 놀이 활동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중략) 한글을 못 읽는 학생의 경우는 웅얼거리다 끝나게 됩니다. 2시간 정도 불러보아야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이 있어요.
- (교사C) 수록된 노래를 주제 중심으로 선정해서 음악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 (교사F)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도록 제시한 공간이 저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작게 제시돼 결국 다른 활동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읍면 지역의 경우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로 지도를 하였을 때 지역 간 차이로 인해 학습 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주제도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읍면 지역에 다문화 배경의 학생 비중이 많고 한글 해득이 잘 안 되는 학생이 학급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교과서에 제시된 놀이 활동 등을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 (교사B) (노래 활동이나 노래의 분량이 많아서) 어려워요. (중략)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많고 아직 한글 미해득인 학생들도 많고 특수교육 대상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학년 학생의 특성상 주변에 없는 학습 내용의 경우 직접 조사하고 알아보는 활동이 어렵다 보니 실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이 교과서에 제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 (교사C) (저희 학교 주변에) 조금만 더 넘어가면 굉장히 소규모 학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3명, 4명 이제 그런 곳들은 그 주변에 논과 밭밖에 없고 이제 친구들도 3명 마을을 둘러 보기 하기에는 관공서를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 우리 학교 주변에는 이제 그런 논과 밭밖에 없는데 학교를 둘러봐요.

결국 학습자의 수준 맞춰 일부 공작 활동, 노래 등의 난도와 학습 공간을 학생 수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지역 간의 차이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 3)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역할 구분의 필요성

교사들은 교과서에 재구성을 위한 공간을 제시하기보다 교사 지도서나 전자 저작물에 충분한 수업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상 학습자 주도성과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강조하면서 통합교과 교과서의 도입과 마무리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수업에 대해 채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도입에는 배움 지도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수업을 고르고 마무리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다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나 삶으로의 전이를 유도하는 활동이 교과서에 빈칸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사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교과서 도입에 있는 배움지도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저학년 학습자의 특성상 흥미 위주의 수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이라면 다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교사에게 부담이 되고 원래 취지대로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게다가 2015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부게시판’처럼 배움 내용에 대해 학급에 게시하는 방향으로 자료가 제공되면 함께 볼 수 있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 (교사A) 각 주제 교과서 뒷부분에는 ‘우리 반 주제를 만들어요’, ‘놀이 수업을 만들어 해 볼까요?’, ‘안전 수업을 만들어 해 볼까요?’ 차시가 큰 비중으로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의 발달 수준 및 특성상 현재 교실 상황에 적절하고, 앞부분에서 수업한 내용을 발전시키거나 변형시킨 주제를 제시하는 것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제로 수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교사C) 그래서 교과서에서 의도하는 게 이제 ‘함께 골라요’라는 그 활동에서 이 배움 지도에서 고른 내용만 가지고 붙여놓고 ‘아이들과 함께 순서를 정해서 학습하세요’라고 이제 교사 교육과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그런 걸 이제 한 학기 동안 네 번 하기에는 특히 1학년 아이들과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많았고, 그래서 거의 교사 주도 하에 의해서 배움 지도도 만들었고 우리 이런 거 공부했으니까 배움 지도도 완성이 된 거야라고 약간 조금 억지스럽게 수업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 (교사D) 배움 지도가 현실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교과서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교과서 마지막에 제시되는 ‘함께 만들어요’ 부분은 활용하는 선생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운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장학이나 연수 등을 통하여 교과서 구성이나 수업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교사F) 모든 교과서 도입에 나오는 우리 반 배움 지도는 교실 게시 형태로 제작하여야 내용 공유에 더욱 효과적인 것 같은데, 학생별로 교과서 맨 앞에 표시하도록 하니 들인 수고에 비해 잘 활용이 안 되는 편입니다. 게다가 내용을 배우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적도록 하는 부분이 1학년 수준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재구성 방안이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활동 자료가 도움자료나 전자저작물로 수록되어 있지 않아 결국 교사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 (교사A) 교사와 학생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플랫폼형·모듈형 교과서가 실제 수업 흐름과 맞지 않아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기 쉽지' 않았다.
- (교사B)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교과서를 만드실 때나 지도서 자료를 준비를 할 때 그래서 USB에 좀 그런 자료를 풍부하게 넣어주시고 교과서 내용에는 최소한으로 정말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사C) 주제로 묶을 수 있는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배열을 해서 골라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페이지도 너무 띄어 두고 '재구성하세요'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중략)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말 그대로 집필진들이 정말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내용만 교과서에 담아주고 이제 그 다양한 추가적인 활동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지도서에 부가 자료로 많이 넣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선택권이 훨씬 더 많아지실 것 같고(생략)
- (교사D)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나 교사 교육과정이 교사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의 구성이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합니다.
- (교사E) <함께 만들어요> 부분의 분량이 많다고 생각한다. <함께 만들어요> 부분은 주제, 안전, 놀이 부분으로 한 장씩 페이지가 할애되어 꼭 채워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즉, 교육과정에서 의도한 재구성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한 내용을 지도서에 더욱 자세히 기술하고 장학이나 연수 등을 통해 교사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에게 자율권을 준 만큼 교과서에 일괄적으로 작성해야 하

는 칸을 제공하기보다 교과서에는 최소한의 학습 내용을 담고 재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도서에 명시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4) 활동의 구체성 강화 및 구성의 위계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교사들은 통합교과 교과서 활동이 좀 더 구체적이고 위계적으로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더욱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과학적인 탐구 요소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였다. 2015과 비교하여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추상적인 학습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과학과의 내용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사회과와 도덕과의 비중이 늘어난 느낌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 (교사B) 자연을 탐구하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주어진 학습자료를 자유롭게 만져 보고, 사물의 모양, 색깔, 냄새, 등 오감을 통해서 분류하는 활동도 부족한 거 같습니다.(중략) 선생님들께서 요소 얘기하셔서 저는 과학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학이 지금 저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자연을 탐구하는 부분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느껴보는 것도 중요한데 만져보는 것도 그 자연을 더 이렇게 자세히 보고 만져보고 그다음에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해야되는 오감을 잘 활용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많이 빠져가지고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교사C) (핵심아이디어가) 너무 철학적으로 제시함.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생활한다 등) 성취기준에 그에 따라 두루뭉술하게 제시됨.
- (교사D) 봄 여름 가을 겨울 교과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과서 안에 단원이 두 개 있는데 이제 하나는 공간성과 시간성으로 이제 나뉘어서 수업이 되고 교사들도 이제 직관적으로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될 건지 그다음에 이제 또 계열화가 잘 되어 있어서 나와 학교 그다음에 마을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이런 식으로 좀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었고 시간상으로도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봄에는 여러 꽃이나 이런 것들 관찰 곤충 관찰하고 봄에 있는 것들도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나가는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안전’ 관련 수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안전한 생활’이 없어지고 통합교과로 내용이 들어오면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안전한

생활에 대한 시수를 최소 64시간 확보해야 하였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 부분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제외하고 통합교과의 각 주제와 관련지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지도서의 개발 원리를 보면 2015의 4가지 안전 영역인 생활 안전, 교통 안전, 신변 안전, 재난 안전에 ‘약물 또는 가상 과의존 안전’, ‘응급 처치 안전’를 추가하여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영역 중 직업 안전을 제외한 6가지 영역으로 안전 요소를 구성하였다 ([그림 IV-3] 참조).

교과서 단원	안전 요소					
	생활 안전	교통안전	신변 안전	재난 안전	약물 또는 가상 과의존 안전	응급처치 안전
학교 1-1	안전하게 사용해요 안전하게 놀아요	안전을 확인해요 안전하게 건너요				
사람들 1-1	기침을 할 때는 함께 이용할 때는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불이 났을 때는		
우리나라 1-1	물놀이를 할 때 체험학습을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기차를 탈 때				
탐험 1-1	옛 조심해요				올바르게 사용해요 고마운 약, 바르게 먹어요	위급해요
나 2-1	신기한 나의 몸 바르게 알고 먹어요		내 몸을 스스로 지켜요 과연 장난일까			
자연 2-1	야영장에서 안전하게 야외에서 안전하게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미세 먼지로부터 안전하게		
마을 2-1	마을 사실을 안전하게	탈것을 안전하게 자동차를 안전하게	길을 잃었을 때			
세계 2-1	식중독을 예방해요	안전하게 이동해요		태풍이 오고 있어요 감염병은 예방이 최고		

IV.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요구 조사

교과서 단원	안전 요소					
	생활 안전	교통안전	신변 안전	재난 안전	약물 또는 가상 과의존 안전	응급 처치 안전
하루 1-2	집에서도 조심해 구급상자야, 고마워	신호등이 없을 때는		세상이 흔들흔들		
약속 1-2	나의 건강을 지켜요	키패드를 탈 때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요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요			
상상 1-2	다쳤어요 기울을 즐길 때는		행복을 주는 말을 해요		적당히 조금만	
이야기 1-2	도서관에 왔어요 무대에 올랐어요			영화관에 왔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왔어요		
계절 2-2	여름을 안전하게 가을을 안전하게 겨울을 안전하게	봄을 안전하게				
인물 2-2	안전하게 놀려면 등산을 할 때는	자전거를 탈 때는			약을 보관할 때는	
물건 2-2	안전하게 공부해요 전기를 안전하게 실내에서 안전하게			화재는 예방이 최고		
기억 2-2	특별실을 안전하게 추운 날도 안전하게				게임 중독을 예방해요	응급 상황에 대처해요

[그림 IV-3]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의 안전 요소(교육부, 2022; 28)

이를 2015의 <안전한 생활>과 비교해 보면 내용 체계에 명시된 내용 요소는 2022에서도 모두 다루고 있으며 오히려 영역이 추가되면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는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V-4] 참조). 하지만 이를 지도한 교사들은 안전 관련하여 내용이 체계적이지 않고 교과서에 개념적인 부분을 충분히 명시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림만 나열한 형태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가.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1. 생활 안전	1.1 학교에서의 안전 생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활동 시 안전 규칙</li> <li>• 학용품 및 도구의 안전한 사용</li> <li>• 놀이 기구의 안전한 사용</li> </ul>	식별하기 예방하기 벗어나기 알리기
	1.2 가정에서의 안전 생활	가정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서의 사고 예방</li> <li>• 생활 도구의 안전한 사용</li> <li>• 응급 상황 대처</li> </ul>	
	1.3 사회에서의 안전 생활	사회에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외 활동 안전</li> <li>• 시설물 안전</li> <li>• 공중위생</li> </ul>	
2. 교통 안전	2.1 보행자 안전	안전을 위해 보행자가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li> <li>• 보행자 수칙</li> <li>• 골목에서 놀 때의 안전</li> </ul>	
	2.2 자전거, 자동차 안전	자전거와 자동차 및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탈 때의 안전</li> <li>• 자동차 이용 시 안전 수칙</li> <li>•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 수칙</li> </ul>	
3. 신변 안전	3.1 유괴·미아 사고 예방	유괴 예방법과 미아가 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낯선 사람의 접근에 대한 대처 방법</li> <li>• 미아가 되었을 때의 대처 방법</li> </ul>	
	3.2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양하며 사 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성폭력/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알고 대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 따돌림의 유형과 예방</li> <li>• 학교폭력 유형과 예방</li> <li>•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li> <li>• 가정폭력 발생 시의 도움 요청과 신고</li> </ul>	
4. 재난 안전	4.1 화재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 수칙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재의 예방</li> <li>• 화재 발생 시의 대피법</li> </ul>	
	4.2 자연 재난	자연 재난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을 익혀 생활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진, 황사, 미세먼지 대처 방법</li> <li>•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 발생 시의 대처 방법</li> </ul>	

[그림 IV-4]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전한 생활> 내용 체계(교육부, 2015; 30)

- (교사B) 2015 교육과정에서는 안전책이 따로 있어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안전교육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22 교육과정은 안전교육을 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중략) 지난 2015 때는 생활 안전 그다음에 교통 안전 신변 안전 재난 안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그냥 주제 중심으로 너무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체계가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 (교사C) 통합 교육과 다른 주제 삽화처럼 안전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단

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우리가 포스터를 보듯이 공익광고의 포스터인 것처럼 교과서가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교사가 이 교과서의 내용만 가지고는 안전을 하기에는 전혀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또한 안전 수업을 제시된 차시명이 직관적이지 않아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 (교사C)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지금 저희가 이제 1학년 교과서에는 조심해 아까 말씀하신 탐험에 지금 ‘앗 조심해요’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단 이 주제를 딱 들었을 때는 뭘 조심하라는 거지 전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은 전기 안전 관련인데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를 제시할 때에도 그 안전과 관련된 전기를 조심해요. 전기 안전을 배워보아요. 조금 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는 제목이었으면 (생략)

반면 안전 관련 내용 요소를 주제와 통합하여 구성된 점이 좋았다는 교사의 의견도 있었으나, 역시 개념 등을 더욱 명시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교과서 형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교사C) 안전 주제를 따로 구성해 준 게 가장 좋았습니다. 안전을 교과안에서 연계해서 지도하는데 별도로 나와 있으니 가르칠 내용이 명확해서 좋았다. 하지만 교과서 안에 기록하거나 쓸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 주면 좋겠다.
- (교사E) 또 안전한 생활 책이 통합으로 들어와 주제와 연관된 안전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 2015와 2022의 안전 관련 교과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하나의 안전 요소에 대해 학년 내의 위계성이 부족하고 차시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교사B가 언급한 교통안전 관련 교과서 내용을 비교한 표이다.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 내용 요소로서 이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전에 2차시에 걸쳐 보행자 수칙을 지도했던 것과 달리 이 내용이 통합되어 1차시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골목에서 놀 때의 안전도 3차시에서 1차시로 조정되었다. 또한 이 내용이 2015 개정 안전한 생활에서는 한 단원 내에서 모든 차시가 마련되어 유기적으로 내용이 연결된 것처럼 느

껴질 수 있는 반면,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이 내용이 다른 책으로 1학기과 2학기에 걸쳐 제시되기에 교사에게 지도 내용이 분절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교사B) 그래서 이번에 탐험 교과서를 보면 탐험에는 그냥 '조심해요' 하고 전기 관련해 가지고 좀 조심하는 거 그다음에 '고마운 약 바르게 사용해요' 이렇게 뭔가의 그 주제를 범주화하지 않고 그냥 딱 주제만 제시를 한 느낌이에요. 근데 전에는 교통안전이면 교통 안전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갈래를 나눠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 또 재난 안전이면 재난 안전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게끔 구체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주제로만 '불 조심해요' 이런 식으로만 나와서 저희가 빠뜨리고 가는 게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IV.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요구 조사

2015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학년-단원-차시명	교과서 모습	학년-〈주제〉-차시명	교과서 모습
1학년 2단원 1차시 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을 알아보아요		1-1 〈학교〉 안전을 확인해요	
1학년 2단원 2차시 길 위의 약속, 꼭 지켜요		1-1 〈학교〉 안전하게 건너요	

<p>1학년 2단원 3차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섯 가지 약속</p>			
<p>1학년 2단원 4차시 신호등이 없어도 안전하게 건너요</p>		<p>1-2 &lt;하루&gt; 신호등이 없을 때는</p>	

<p>1학년 2단원 5차시 골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A colorful illustration of a street scene. In the foreground, a child is riding a bicycle. To the right, a dog is on a leash. In the background, there are buildings, a car, and other children walking. The scene is set in a residential area with a mix of traditional and modern architecture.</p>		
<p>1학년 2단원 6차시 골목에서 안전하게 행동해요</p>	 <p>A collection of safety icons arranged in a grid. The icons illustrate various safety rules for children in a street environment, such as crossing the street safely, using a crosswalk, and being aware of their surroundings. The icons are colorful and easy to understand.</p>		

[그림 IV-5] 2015 및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교과서 활동 내용 비교(1)

학년-단원-차시명	교과서 모습	학년-〈주제〉-차시명	교과서 모습
2학년 3단원 3차시 괴롭힘은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1-2 〈상상〉 행복을 주는 말을 해요  2-1 〈나〉 과연 장난일까	
2학년 3단원 4차시 괴롭힘, 멈춰!			

[그림 IV-6] 2015 및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교과서 활동 내용 비교(2)

2022 통합교과 교과서의 안전 수업에 해당하는 차시명과 교과서 활동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그림 IV-6]의 교과서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변 안전의 학교폭력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 2015 안전한 생활은 하나의 차시에서 다뤘던 내용을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1학년과 2학년에 걸쳐 두 차시로 나눠서 지도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행복을 주는 말을 해요'와 같은 차시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도해야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의 유형을 알아보고 대처 방법을 순차적으로 지도하기 보다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내용이 학년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저학년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과학과의 내용을 더욱 배치하여 학생들이 직접 자연 환경의 내용을 관찰하는 등 교육 내용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교육 요소는 책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하였으나, 각 책의 주제와의 연계성은 깊지 않거나 직관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지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 요소의 활동이 여러 책에 배치되어 있어 분절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결국 수업을 해도 하나의 안전 요소의 학습으로 잘 모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 요소의 한 차시를 살펴보면 구체성이 약하고 깊이가 없으며 표면적으로 "~조심해요!"와 같이 당위성의 측면에서만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기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 교사 설문 조사

통합교과 교과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기초 교과서로서, 생활과 학습을 긴밀히 연결하는 특징을 가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과 함께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된 통합교과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에 비해 주제 중심 접근, 학습자 경험 중심 구성, 시각 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실제 수업 경험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요구와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사 도구의 개발은 교과서 개선 연구의 필수적 단계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통합교과 교과서의 삽화, 활동 구성, 내용 적절성 등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질적 연구에 머무르거나, 제한된 수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주관적 의견을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계량적 자료로 전환하여, 향후 교과서 개선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가. 연구 방법

이 설문 조사에는 2024년 또는 2025년 현재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 121인이 참여하였다. 설문은 구글 설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사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 제약으로 인해 이 설문에 참여한 교사들이 초등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진은 설문을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기보고식 설문도구를 제작하였다. 여러 차례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설문 분야를 크게 6개의 범주로 설정하였으며, 각 범주 하에 2~4개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교과서 삽화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 중에서 서로 변별되는 특성이 있는 삽화 유형을 5가지로 추출하고, 이들 삽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문항을 1개 추가하여 설문도구는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도구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V-3〉 교사 설문 도구

범주	세부 문항
교과서 주요 변화 요소에 대한 인식	1. [주제 선택권 확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교실에서 직접 학습 주제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IV.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요구 조사

	<p>2. [분책 수 증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학기별 4권(1권당 1개월 학습량)으로 분책되었습니다(2015 개정: 학기별 2권/1권당 2~3개월 학습량).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p> <p>3. [모듈형 교과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교실에서 원하는 학습 요소를 취사 선택하여 재조합할 수 있도록 모듈형 교과서의 형태를 취했습니다(한 단원 내에 주제 20개, 놀이 8개, 안전 4개). 2015 개정 교과서('해봐요' 20개) 대비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p> <p>4. [배움 지도 도입] 2015 개정 교과서의 단원 도입부에 제시되었던 '무슨 활동을 할지 살펴봅시다'는 2022 개정 교과서에서 '배움 지도'의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p>
교과서의 전반적 특성	<p>5. 통합교과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차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p> <p>6. 통합교과 교과서는 초등 저학년 발달 수준에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p> <p>7. 통합교과 교과서는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p> <p>8. 통합교과 교과서는 학습자 주도적 학습을 촉진한다.</p>
교과서 이용 형태 및 활용성	<p>9. 통합교과 교과서는 수업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다.</p> <p>10. 교과서 활동은 주어진 수업 시간(차시) 안에 소화할 수 있다.</p> <p>11. 교과서를 사용할 때 보조 자료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p> <p>12.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용이하다.</p>
내용의 정합성 및 적절성	<p>13. 교과서의 내용은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한다.</p> <p>14. 교과서에는 내용 오류가 거의 없다.</p> <p>15. 교과서 활동은 교과 역량(관찰, 탐구, 표현 등)을 신장시킨다.</p>
편집 및 디자인 요소	<p>16. 글자 크기, 글꼴, 여백 등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다.</p> <p>17. 삽화 사진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p> <p>18. 붙임딱지 등 활동 자료는 교육적 효과가 높다.</p> <p>19. 교과서 디자인은 학습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p>
다양성과 포용성	<p>20. 교과서는 다양한 학생(성별,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p> <p>21. 교과서는 다문화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p>
기타	<p>22. 향후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p>

‘교과서 주요 변화 요소에 대한 인식’ 범주는 2015 개정 대비 2022 개정 교과서의 가장 주요한 변화 요소인 주제 선택권 확대, 분책 수 증가, 모듈형 교과서, 배움 지도 도입에 대해 교사들의 대체적인 인식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과서의 전반적 특성’ 범주는 교과서가 타 교과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주제 중심 접근과 학습자 경험 중심 구성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에 의해 설정되었다.

‘교과서 이용 행태 및 활용성’ 범주는 교사들이 교과서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조 자료와의 관계, 차시 내 학습 분량 문제 등과 관련되며, 이는 교과서 개선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정합성 및 적절성’ 범주는 성취기준과 학습 활동의 연계성, 내용 오류 여부, 활동 난이도의 적절성은 교과서 질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사들의 인식을 수치화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교과서 개발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집 및 디자인 요소’ 범주의 경우 글자 크기, 삽화, 사진, 붙임딱지 등 편집 요소가 초등 저학년의 학습 이해와 흥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포용성’ 범주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발달 수준의 다양성 등이 향후 교과서 설계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교사가 현행 교과서에 대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 나. 설문 분석 결과

교사들은 각 문항마다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하나를 고르는 방식으로 응답하였으며, 연구진은 이를 1~5점(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으로 변환하여 각 문항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

〈표 IV-4〉 설문 분석 결과

문항	평균점수
1. [주제 선택권 확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교실에서 직접 학습 주제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3.45
2. [분책 수 증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는 학기별 4권(1권당 1개월 학습량)으로 분책되었습니다(2015 개정: 학기별 2권/1권당 2~3개월 학습량).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3.30
3. [모듈형 교과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서는 교실에서 원하는 학습 요소를 취사 선택하여 재조합할 수 있도록 모듈형 교과서의 형태를 취했습니다(한 단원 내에 주제 20개, 놀이 8개, 안전 4개). 2015 개정 교과서('해봐요' 20개) 대비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3.31
4. [배움 지도 도입] 2015 개정 교과서의 단원 도입부에 제시되었던 '무슨 활동을 할지 살펴봅시다'는 2022 개정 교과서에서 '배움 지도'의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3.21
5.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차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잘 보여준다.	3.70
6. 교과서는 초등 저학년 발달 수준에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다.	3.34
7. 교과서는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3.64
8. 교과서는 학습자 주도적 학습을 촉진한다.	3.18
9. 교과서는 수업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활용도가 높다.	3.28
10. 교과서 활동은 주어진 수업 시간(차시) 안에 소화할 수 있다.	3.32
11. 교과서를 사용하면 별도의 보조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2.26
12.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이 용이하다.	3.40
13. 교과서의 내용은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한다.	3.84
14. 교과서에는 내용 오류가 거의 없다.	3.82
15. 교과서 활동은 교과 역량(관찰, 탐구, 표현 등)을 신장시킨다.	3.55
16. 교과서의 글자 크기, 글꼴, 여백 등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다.	4.10
17. 교과서의 삽화·사진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3.96
18. 교과서의 붙임딱지 등 활동 자료는 교육적 효과가 높다.	3.78
19. 교과서의 디자인은 학습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4.03
20. 교과서는 다양한 학생(성별,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3.84
21. 교과서는 다문화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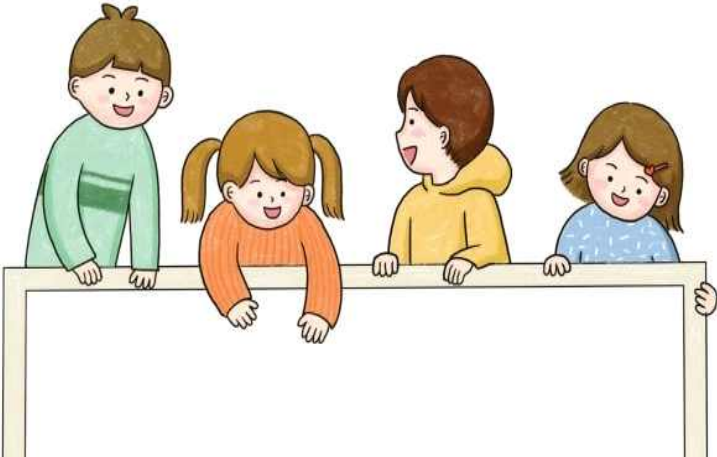
분석 결과 교사들의 반응 점수는 전반적으로 3점대 중반으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교과서를 사용하면 별도의 보조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2.26점)로, 이로 미루어 볼 때 교사들은 실제 수업을 위해 교과서 외에 다양한 보조 자료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반대로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항은 ‘교과서의 글자 크기, 글꼴, 여백 등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다.’(4.10)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통합교과 교과서의 편집 요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교사들이 선호하는 삽화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 전체를 검토하여 가장 변별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삽화 유형을 5가지 선별하였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선호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5〉 초등교사들의 삽화 선호도

유형	응답 수	비율(%)
	54	44.6
	15	12.4
	11	9.1

 <p>58</p>	24	19.8
	17	14.0

마지막으로 제시한 자유 기술 문항에 대해 121명 중 92명의 교사들이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유 기술한 응답 내용은 앞서 5점 리커트 문항에서 교사들이 대체로 낮은 점수로 반응한 것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중복되거나 분량이 적은 내용을 제외하고 향후 교과서 개선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범주별로 유형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교과서 주제 및 분권의 적절성 관련

-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학생들 생활, 계절과 밀접하게 활동하던 2015 교육과정이 훨씬 더 체계적임. 9월에 받는 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날씨 및 계절별 안전을 배우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교과서를 받은 현장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다시 교과서를 쓰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권의 통합교과가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에게는 직관적이었던 것 같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교과서의 주제 구분이 납득이 안 가요. 예전처럼 봄/여름/가을/겨울 형식으로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교과는 실제 현장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2학년을 연속으로 하며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을 모두 경험하였는데, 2015 교육과정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된 경우가 훨씬 더 저학년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 수준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 ‘계절’ 교과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꺼번에 수업을 하려고 하니 현재 계절에 맞지 않게 수업해야 하는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1학기 ‘탐험’, 2학기 ‘상상’은 다소 맥락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 개정 교육과정보다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계가 더 낫습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계속 반복되는 주제와 활동이 많습니다. 불필요한 반복은 줄이고 내실화했으면 합니다.
- 통합교과의 학기당 4권의 책 내용 구성에서 계절별로 재배치가 필요함.
- 한 학기에 4권으로 분권되어 복잡하다! 특히 2학년 2학기 ‘계절’ 교과서는 사계절을 한 번에 배우게 되어 있다. 오히려 전 교육과정에서 계절별로 제목을 정해 시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 같다. 학기당 4개의 통합교과 교과목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쉽지 않다!
-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계절별 상황에 맞춘 개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학습 효과면으로 보더라도 더 적절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교과서 체계에서는 ‘계절’이라는 교과서를 봐도 그렇고 시기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학습해야 한다거나 이 교과서에서 다뤘던 주제를 다른 교과서에서 또 다루게 되는 중복된 학습 내용이 있기도 해서 교과서 간 내용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미디어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교과서에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코딩, 미디어 리터러시 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과서의 자율성(학습자 주도성) 관련

- 통합교과의 주제를 학교와 교실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제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배움 지도의 경우에도 학습 주도성을 가져본 적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기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어진 주제가 성취기준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주제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소재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 학습자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은 교사용 지도서에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수업 만들기 등의 교과서에 빈 공간이 많은 경우 채워야 된다는 부담이 듭니다.
- 학습자 재구성 수업은 저학년 특성상 한계가 있음.
- 마지막 4차시나 주제를 직접 만들게 되어 있는데, 1학년에게는 너무 어려운 활동이라 실제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마지막 00만들기 차시는 다 건너뛰고 수업하는 실정입니다.

○ 배움 지도 개선 관련

- 배움 지도 스티커가 꼭 필요한지 고려해 주세요. 재구성하여 순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나 배우기 전에 모두 붙이기에 저학년이 힘들어하고, 또 할 때마다 붙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 배움 지도 만들기는 학생들이 제목이나 교과서의 삽화만 보고 수업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정으로 교사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 듯하며 주제 학습으로 정한 주제와 교과서명이 체계가 있다기보다 계절이나 주변 사정과 상관없이 교과서에 제시한 주제로 수업을 해야 하는 억지스러움이 있다.

○ 교과서 분량 및 내용 중복 관련

- 교과서의 학습 분량이 다소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차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나 학생은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내용이나 활동이 수업 시간 내에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 활동을 가능한 한 전부 다루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교과서의 학습량이 많다고 체감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선택형이라고 하지만 교과서 형태로 나온 이상 모든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하루’ 교과서는 별거 없는 내용을 지루하게 반복, 반복, 반복 …… 일부러 한 권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억지로 늘린 …… 가르치기도 너무 힘든 교과서입니다. 아이들 시간 귀합니다. 통합 교과는 주당 수업시수도 매우 많은데 …… 정말 시간 아까워요. 아이들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제발 전면 수정 부탁드립니다.

- 일부 교과서는(예: ‘하루’)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중복되는 수업을 준비하고 하는 느낌입니다. 또한 교과 주제를 도달하기 위해 교사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 2학년 ‘인물’, ‘기억’ 교과서는 한 달 내내 학습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비슷한 내용의 반복.
- ‘기억’ 교과서는 같은 내용이 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 교과서 분량을 좀 줄이고 음악의 경우 분량이나 전문적인 지도 내용이 부족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음악 요소가 더 들어갔으면 합니다.
- 통합의 제목에 너무도 국한되어 교과서가 구성되다 보니, 예를 들어 ‘하루’의 경우 비슷한 류의 학습이 계속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약간의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 2학년 안에서도 1학기 통합교과 내용이 2학기에도 나옵니다. 교과서 집필진 간의 협의가 없었던 듯합니다. 내용이 유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 통합교과 내용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도하면 아이들이 많이 지루해해요.
- 교과서에 내용이 너무 많고 중복되는 요소도 많습니다. 좀 더 간결하게 핵심요소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듯합니다.
- 간혹 한 주제로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비슷한 내용을 너무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루’ 책이 가장 심하고, ‘사람들’과 ‘약속’ 책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 ○ 수준 적절성 관련

- ‘탐험’ 교과서 같은 경우는 1학년 수준에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철학적 주제로 저학년 학생들의 사고 발달에 적합한지 다소 의문입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더 낫습니다. ‘마을’ 교과서는 3학년 사회 교과와 위계가 맞지 않고 인물은 세종대왕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1, 2학년 선생님들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개정 전 통합교과서는 훌륭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개정을 위한 개정을 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 2학년 교과서 중 ‘물건’ 교과서는 아이들 수준에 너무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 발달 수준에 알맞은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학생들에게 어려워요.
- ‘탐험’이나 ‘상상’과 ‘하루’와 같은 주제는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들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발달 단계를 고려하면 아이들이 구체물을 다룬다거나 실생활과 연관 짓기 좋은 주제들로 구성되었어야 합니다.

- ‘하루’, ‘약속’과 같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개념의 교과서는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학에서 시계를 배우지 않았는데 ‘하루’ 책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시계로 만들어 보는 활동이 있고 어제 하루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를 생각해 내고 하루 계획을 세우는 활동은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 보조 활동 자료 관련

- 학습지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교과서에 충분히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 통합교과의 보조 자료들이 조금 더 많이 채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른 출판사의 자료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보충 자료나 붙임 자료들이 더 다양하게 첨부가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 편집 및 디자인 관련

- 4권 교과서 순서가 겉표지나 책등에 따로 표시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봄, 여름, 가을, 겨울 형식이나, 통합1, 통합2 등의 순서 및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되면 좋겠습니다.
- 붙임딱지의 경우 떼는 것부터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므로 여러 차시가 한 장에 있는 경우 중간에 칼집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붙임딱지를 개인 제작할 필요 없게 만들어 주세요. 떼기 쉽게 해 주세요.

#### ○ 기타 의견

- 「계절」에서 현장 체험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 차시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즘처럼 외부 현장 체험을 가지 않는 추세에서는 조금 수업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은 여러 상황 중 하나로 넣어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 다문화뿐 아니라 느린 학습자를 위한 학습 격차를 고려한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 안전이나 즐거운 생활 부분은 주제와 다소 동떨어져 안전이나 음, 미, 체 활동을 위해 끼워 맞춘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낮습니다.

### 3. 소결

이 장에서는 교사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교과서의 학습량, 난이도, 구성 체계, 편집 요소, 다양성과 포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교사들은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의 학습량이 과도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였다. 성취기준 수 자체는 2015 개정 대비 감소하였으나, 주제별 활동 수와 분권 교과서의 구조로 인해 실제

수업 시간 안에 소화하기 어려운 분량이 제시되었다. 교사들은 “모든 활동을 반드시 다 해야 한다.”는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 그리고 교사 스스로의 책임감 때문에 선택 차시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깊이 있는 탐구 학습보다는 피상적 활동 나열식 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이는 곧 교과서의 분량과 차시 구성이 학습자의 발달 수준, 교사의 수업 운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개선에서는 핵심 활동 중심의 간결화가 필요하며, 재구성을 위한 보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부담 없이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은 통합교과 교과서에 포함된 일부 활동이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종이접기, 노래, 놀이 활동 등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학습 공간의 제지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별도의 활동지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읍면 지역이나 다문화 배경 학생이 많은 학급에서는 언어적 어려움과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해 교과서 제시 활동이 실행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보고되었다.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상적·철학적 주제나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의 활동보다는 구체적이고 경험 가능한 활동, 생활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주제,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습 과제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 격차 완화와 학습 참여 확대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와 지도서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과서에 재구성을 위한 빈칸이나 배움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이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오히려 교과서에는 최소한의 필수 학습 내용을 간결히 제시하고, 재구성 및 창의적 수업 운영을 위한 자료는 지도서와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과서 집필 방향이 교사 자율성 확대라는 교육과정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현실적인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교사들은 교과서 활동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특히 과학 탐구 활동의 비중이 축소되고, 사회·도덕적 주제가 확대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는 저학년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며, 교과 역량 신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통합교과 교과서에는 자연 탐구와 과학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활동 요소가 보다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단원 내 학습 활동이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학습의 연속성과 심화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중복되거나 산발적으로 배치된 활동 구조는 학습 동기와 성취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안전교육은 2015 개정에서 별도의 교과로 운영되던 것이 2022 개정에서 통합교과로 흡수되면서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교사들은 안전 수업이 포스터식 삽화 위주의 추상적 활동으로 제시되어 실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차시명과 활동 구성이 직관적이지 않아 교사가 수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안전교육은 저학년 시기 학생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교육 요소인 만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지도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 안전, 교통 안전, 신변 안전, 재난 안전 등 핵심 영역은 학년별 발달 수준에 맞게 위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의 안전 역량 형성과 학부모 신뢰 확보와도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교과서의 편집 및 디자인 요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글자 크기, 글꼴, 여백, 삽화 등은 저학년 발달 수준에 적절하며, 학습자의 흥미와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2022 개정 교과서가 시각적 요소와 학습자 친화적 디자인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붙임딱지 등 부가 자료의 활용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떼기 쉽고 활동 차시별로 적합하게 설계된 자료 제공이 요구된다. 이는 수업 준비의 효율성과 학생 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합교과」 교과서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탐색함으로써 차기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통합교과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변화해 온 초등 저학년 중심 교과로서, 유아 교육과정과 교과 중심 학습 사이에서 학습자의 발달과 생활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중요한 교수·학습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주제 중심의 단원 구성과 교과 역량 신장을 강조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서 학습량 과다, 활동의 난이도와 적절성 문제, 교육과정 취지와 수업 운영 간 괴리 등 다양한 어려움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교과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현장 요구를 반영한 개선 필요성을 촉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되었다. 첫째, 교과서는 여전히 초등학교 수업의 핵심적 교수·학습 자료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수업 충실성을 확인하는 가장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교과서이며, 교사의 수업 운영에서도 교과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2022 개정 교과서가 현장에서 기대한 만큼 자율성과 융통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량이 과도하고 활동이 중복되며, 차시 구성의 연계성과 위계성이 부족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셋째,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발달 수준의 다양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보장 등 포용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교과서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본 연구에서 교과서 내용과 편집 전반을 검토하고, 해외 사례 및 교사·학생 요구 조사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도록 이끌었다.

연구는 크게 교과서 분석, 해외 사례 검토, 교사 대상 요구 조사, 설문 및 인터뷰 도구 개발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과서 분석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 이후의 변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통합교과의 도입 배경과 구조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과서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는 단원 간 연계성 부족과 활동의 피상성을 노출시켰다. 2015 개정에서는 성취기준 연계를 강화하고 역량 신장을 지향하였으나 여전히 활동 중심의 과잉 구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2022 개정에서는 배움 지도, 수업 묶음, 함께 만들어요 등 모듈형 구조를 통해 자율성 확대를 도모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오히려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학생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해외 사례 검토는 일본과 핀란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의 생활 교과서는 학생 생활 경험을 세밀하게 반영하며, 관찰·탐구·표현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한다. 생활 속 주제를 자연스럽게 발견하도록 설계되어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밀접한 맥락에서 학습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핀란드의 'PISARA' 교과서는 주제 중심 통합의 정교한 구조와 탁월한 시각 자료 활용이 특징적이다. 이는 학생 자율성과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며, 학습자의 흥미와 탐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학생 주도적 학습 강화, 문화 다양성 반영, 시각 자료의 교육적 활용 등을 보완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장 요구 조사는 최근 통합교과를 가르친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학습량 과다를 반복적으로 지적했으며, 성취기준과 활동 간 정합성 부족,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꼽았다. 붙임딱지와 같은 부가 자료는 활용성이 낮고 품질이 떨어져 수업 준비와 운영에 불편을 준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학생들은 글자 크기와 삽화, 사진 등에서 흥미와 친근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내용이 생활과 동떨어져 있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때에는 거리감을 드러냈다. 연구진은 교과서 분석, FGI 등을 토대로 교사 대상 설문 도구를 개발하였다. 교사 설문은 전반적 특성, 이용 행태, 내용 정합성, 편집 및 디자인, 학습 효과, 다양성과 포용성 등 6개 범주,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교과서 개선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활동과 학습량의 간결화가 필요하다. 핵심 활동 중심으로 교과서 분량을 축소하고 재구성 및 학생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지도서와 디지털 콘텐츠에서 보완하는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 수준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추상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활동보다는 구체적이고 생활과 밀접한 활동이 강조되어야 하며, 학습자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교육은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구체적이고 위계적인 체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편집 및 디자인 요소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활동 자료의 품질과 활용성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의 자율적 재구성이 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미래 교육을 대비해 디지털 활용, AI·코딩·미디어 리터러시 등의 새로운 요소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통합교과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교실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도출하였다. 교사의 요구를 근거로 반영하고,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접목하며, 실질적 조사 도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치화함으로써, 향후 통합교과 교과서가 학습자 발달을 촉진하고 포용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며,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2.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초등학교 1·2학년군 「통합교과」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진, 교육정책 담당자, 연구자 집단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주체를 대상으로 제언을 제시하였다.

### 가. 교과서 개발진을 위한 제언

교과서 개발진 및 출판사는 직접적으로 교과서를 집필·출판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주체로서, 연구 결과에서 언급된 여러 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량과 활동 분량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2022 개정 교과서가 현장에서 학습량 과다로 지적된 만큼, 차기 교과서 개발에서는 핵심 성취기준과 발달 수준에 부합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간결하게 구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수업 시간 내

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양을 제시하면서도, 교사의 재구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서 본문에는 필수 활동만 담고, 확장 활동이나 선택 활동은 디지털 자료나 별도 지도서에서 보조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 수준 적합성을 확보한 활동 설계가 절실하다. 일부 활동이 저학년 학생들의 인지적·정서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고난도의 과제로 제시된 점은 교과서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아동 발달 전문가, 현장 교사, 특수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강화하고, 실제 수업 적용 과정을 모의 실험하거나 파일럿 검증 단계를 체계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실제 수준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저소득층·장애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시각 자료와 편집 디자인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글자 크기, 글꼴, 여백 등 기본적 편집 요소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삽화의 정확성, 사진의 적합성, 붙임딱지 등 활동 자료의 품질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었다. 시각 자료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동시에 학습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용 지도서 및 디지털 지원 자료의 확충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자료가 현재로서는 충분치 않다. 지도서에 재구성 예시, 수업 운영 가이드, 학습자 다양성 대응 전략, 안전교육 구체화 자료 등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확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교과서 개발 회사가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 수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생태계적 플랫폼 제공자로 거듭나는 것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장 참여형 개발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과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교과서가 실제 수업 맥락과 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곧 교과서의 수용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 될 것이다.

## 나. 교육정책 담당자에 대한 제언

교육정책 담당자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주체로서, 교과서 개발과 활용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 분량과 구조에 대한 국가 수준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교사와 학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학습량의 상한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추후 통합교과 교과서를 겸인정 형태로 전환할 경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둘째, 교사 재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연수와 장학 지원이 필요하다. 교과서의 자율적 운영은 교사의 전문성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이 교과서 재구성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은 제도적 지원의 부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사 대상 맞춤형 연수를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여 교과서 활용 사례와 재구성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과서 디지털 전환 정책의 전략적 추진이 요구된다. 현행 종이 교과서 중심의 개발 체제를 넘어, 디지털 교과서 및 온라인 학습 자료와의 연계 체제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PDF 제공 수준을 넘어, 교사의 수업 설계와 학생의 자기주도적 탐구를 지원할 수 있는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 연구자, 교사 집단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안전교육 체계 강화가 절실하다. ‘안전한 생활’이 통합교과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교과서에서는 추상적 제시와 포스터식 삽화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정책 담당자는 학년별 안전교육 성취기준과 교재 반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과정-교과서-수업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요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정책의 장기적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체육 중심의 통합교과 신설, 음악·미술 중심의 재구성 등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교과의 정체성과 역할을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교과서 개발 기관이 협력하여 단계적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첫째, 통합교과 교과서 연구의 근거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통합교과 교과서는 수차례 개정과 변화를 거듭해 왔으나, 교과서 개발의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이론, 발달심리학, 교수학습 모형, 교육공학 등을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교과서 개발의 학문적 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 기반 실증 연구 확대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교사 인터뷰와 설문, 해외 통합교과 교과서 분석 등은 본 연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더 나아가 대규모 전국 단위의 조사, 장기적 추적 연구, 실험 연구 등을 통해 교과서 활용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와 학습 성취, 흥미, 자기 주도성, 협력 능력 등 학습자 발달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교과서 설계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해외 비교 연구와 국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 핀란드 사례뿐 아니라 유럽, 북미,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통합교육 및 저학년 교과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글로벌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OECD, UNESCO, EU 등의 국제기구와 연계한 연구를 통해 세계적 담론 속에서 한국형 통합교과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동환(2008). 초등학교 통합교과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학생과 교사 선호도 분석. **통합교육과정연구**, 2(2), 1-19.
- 교육부(201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안전한 생활 포함)(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42]). 교육부
- 교육부(2024).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주)지학사.
- 류영규·박한숙(2024). 2022 개정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과 통합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 **질적탐구**, 10(4), 131-154.
- 민보선(2024). Dewey의 '하나의 경험'으로 본 교사의 2022 개정 초등통합교과 교과서 사용 경험. **통합교육과정연구**, 18(3), 23-48.
- 민보선·정광순(2024). 초등통합교과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 검토 의견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초등교육연구**, 37(4), 295-321.
- 박창건·김경식(2017). 2009 개정교육과정 초등학교 통합교과서 삽화분석-다문화교육적 관점에서. **교육사회학연구**, 27(1), 115-140.
- 양효준·정광순(2024). 교사가 인식한 2022 개정 통합교과 교과서의 특징의 의미: 현장 적합성 검토 의견에 대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 **통합교육과정연구**, 18(2), 29-56.
- 윤근혁(2024.6.19.). 초1 교과서 한복 오류... 교육부, '리콜' 이어 또 '수정'하기로 (<https://v.daum.net/v/20240619173603456>). 교육언론[창](2025년 8월 31일 검색).
- 이한나(2014). 한국, 중국, 일본의 초등학교 통합교과용 교과서 비교 분석. **통합교육과정연구**, 8(3), 25-42.
- 이희정(2015). 통합교과 교과서 외적 요소의 변천. **통합교육과정연구**, 9(1), 19-42.
- 정광순(2007). 초등 통합 교과서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반성. **통합교육과정연구**, 1(1), 75-99.
- 정광순·홍영기·강충열(2012).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론. 학지사.
- 주형미·양윤정·남창우(2014).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현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부록

## 「통합교과」 교과서 샘플 단위 개발 예시

1. 「통합교과」 교과서 주요 개선 방향  
(지도서 안내 자료)
2. 예시 단위(안)



## 1. 통합교과 교과서 주요 개선 방향(지도서 안내 자료)



학생의 "생활 맥락"을 반영한 주제로 접근해요.



학생의 실제 경험과 생활 맥락 속  
흥미 있는 주제 중심 접근 학습 활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lt;코너&gt; 생활 속에서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lt;코너&gt; 함께 배워요.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lt;코너&gt; 스스로 질문해 보아요.             </div>
--	---	--

☺ **단원 간 주제와 활동이 연결돼요!** 여러 단원의 주제와 활동이 긴밀하게 이어져 구체적이고, 경험 가능한 학습 활동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설계되었어요.

☺ **생활 맥락 반영, 주변과 함께 해요!** 친구, 가족,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통합교과 활동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 **학생의 발달 특성과 생활 경험을 충실히 반영해요!** 주제 중심 접근으로 학생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고, 적합한 교육 내용 요소로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움을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 탐구 기반 접근 ‘지식, 기능, 태도’ 를 균형 있게 갖추는 시각 자료와 디지털 콘텐츠 강화

<p>&lt;코너&gt; 디지털 콘텐츠 (영상, 활동자료) 도움을 받아요.</p>	<p>☺ <b>주변을 관찰하고 탐구해요!</b> 다양한 체험을 통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직접 보고 느끼는 탐구 활동을 함께해요.</p>
<p>&lt;코너&gt; 가정에서 함께 해요.</p>	<p>☺ <b>지식, 기능, 긍정적인 태도로 나아가요!</b>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실천해야 하는 지식, 기능,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요.</p>
	<p>☺ <b>디지털 콘텐츠와 연계된 활동, 생생한 시각적 자료가 가득해요!</b>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 시각 자료로 쉽게 접근해요.</p>



## ‘교육 내용 요소’ 구체성과 위계성 강화 학습 활동

<p>&lt;코너&gt; 배움 게시판</p>	<p>☺ <b>배움 게시판을 통해 배운 내용을 단계적으로 정리해요!</b> 차근차근 배운 내용을 누적해서 친구들과 함께 정리해 보아요.</p>
<p>&lt;코너&gt; 우리 반 활동 수첩</p>	<p>☺ <b>배운 내용과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요!</b> 학습 활동 후, 갖게 된 새로운 생각이나 질문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창의력을 길러요.</p>
	<p>☺ <b>활동 중심으로 이해하고 나아가요!</b> 구체성과 위계성을 지닌 활동을 단계적으로 학습해요.</p>

★ 피상적 활동 나열식 수업이 아닌, 핵심 탐구 활동 중심의 선택적 주제 중심 수업 체제를 지향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2. 예시 단원(안)

[들어가며]

통합교과 내용 요소 (슬기로운 생활)

〈생물들과 사이 좋게〉



1

※ 배움 내용 살펴보기

생활 속에서

■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 이야기

우리 함께

놀이 활동

안전 활동

■ 색으로 만나는 생물

■ 놀이로 만나는 생물

■ 생물 속 탐험 여행

■ 집안 속 생물 탐구

■ 그림책 생물 친구

배움 게시판

■ 차곡차곡 정리해요!

각 단원별  
핵심 질문 제시하기

“생물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2

※ 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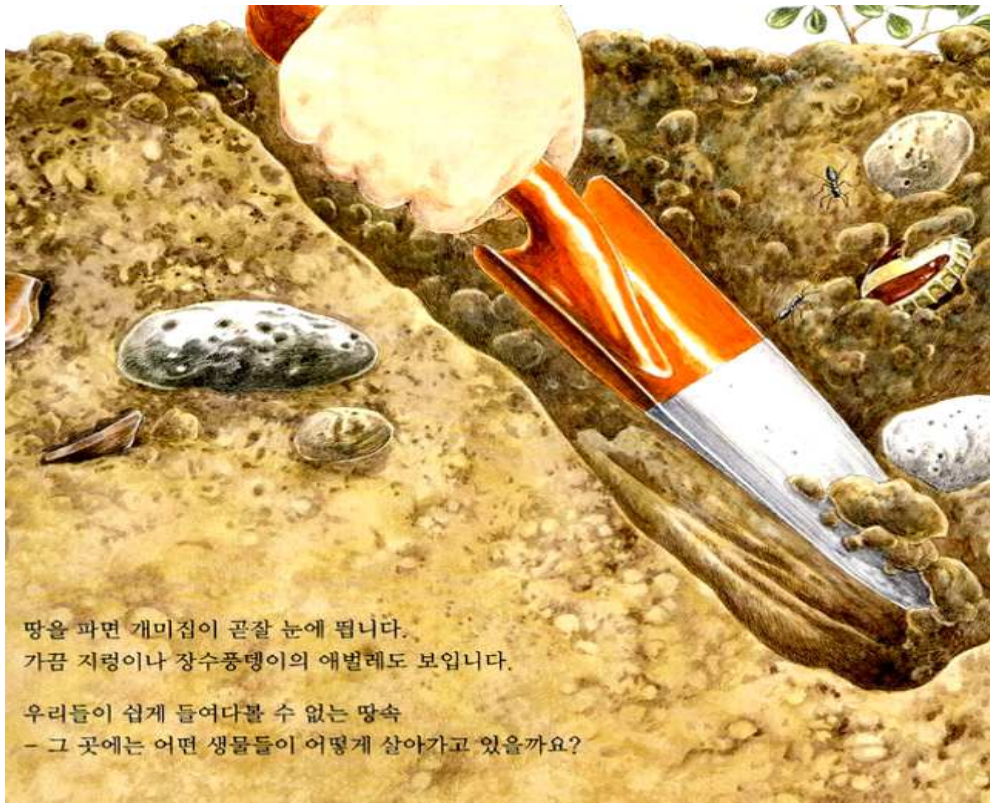
<코너>

생활 속에서

관련 그림책, 디지털 콘텐츠  
등 시각 자료 접근성 강화



학교 화단 속 땅을 파면 어떤 생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 출처: 오오노 마사오(2001)(글, 김창원(웁긴이), 「땅속 생물 이야기」, 진선출판사.

※ 우리 함께

 놀이와 함께 하는 생물

숲 속 친구들을 '찾아보는 탐험 놀이', 함께 떠나볼까요?

 (듣기 자료)

[잔잔한 자연 소리 - 새 지저귐, 바람 소리]

해설:  
“얘들아, 귀를 쫑긋 열어 볼까?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

[벌레 '딱딱' 걷는 소리 / 나뭇잎 '사각사각' 흔들리는 소리]  
“숲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살고 있어.  
작은 벌레, 초록 잎사귀, 그리고 조용히 숨 쉬는 나무까지!  
다 함께 우리에게 '안녕!' 하고 인사하고 있지.”

(살짝 신나는 효과음)  
“자,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볼까?  
후우—  
지금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도 작은 생물들이 만들어 준 선물  
이야.”  
“오늘은 이 숲 속 친구들을 '찾아보는 놀이'를 할 거야!  
혹시 어디에 어떤 생물이 숨었는지 맞춰 볼 수 있을까?  
그럼, 신나게 출발해 보자!”

[발걸음 소리와 함께 페이드아웃]

→ 학교 주변의 숲속을 걸으며 생물 친구들을 찾아보아요.

※ 놀이 활동

<코너>

함께 배워요.

생물은 살아 있는 것을 말해요.

생물은 크게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로 나눌 수 있지요.



→ 위의 입체북을 열면 동물과 식물을 구별해 보는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안전 활동



생물, 탐험! 우리 가족 안전

가족과 함께 떠나는 생물 탐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림책 읽기 자료)

“엄마, 아빠!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신기한 생물에 관심이 많은 건우가 이번엔 텔레비전 속에서 흥미로운 생물을 찾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정글에 살고 있는 생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글은 어떤 곳이에요?”

“정글은 큰 나무들이 뿅뿅하게 자라고 있는 열대 우림 지역의 숲을 말한단다.”

건우는 정글의 신비로운 생물에 흠뻑 빠졌어요.

“건우야, 정글에는 못 가더라도 우리나라의 숲으로 생물 탐험을 갈까? 우리나라의 숲에도 정글처럼 신기한 숲 속 생물이 많이 있거든.”

“와!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 최고!

건우는 경총경총 뛰며 좋아했어요.

그럼, 숲 속 생물 탐험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볼까요? 참,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정글이 뭐예요?

정글은 아프리카 콩고강, 말레이반도, 인도네시아 등의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 울창한 숲을 말해요. 정글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양의 산소 덕분에 지구 동물이 행복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코너>

스스로

질문해

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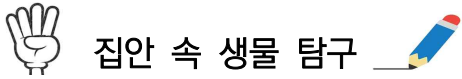
● 숲 속 탐험! 가족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 혼자 멀리 가지 않아요.
- 낯선 식물이나 벌레를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 계속이나 연못에서는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 \*참고 자료: 한영식(2018),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숲속 생물 이야기」, 아이세움.

※ 놀이 활동



집안 속 생물 탐구

우리 집 안에서도 여러 생물을 찾고 관찰할 수 있어요.  
 잘 보면 작은 식물, 귀여운 반려동물,  
 혹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까지 살고 있습니다.  
 집 안, 다양한 생물을 관찰해 볼까요?



<코너>

가정에서

함께 해요.



가정에서 함께 하는 생물 관찰 활동지

- 오늘 관찰한 생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이 생물은 어디에서 보았나요?
- 관찰한 생물의 모습을 그려 보세요.
- 이 생물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색깔:  
 크기:  
 움직임:
-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 더 궁금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친구들에게 말해 보세요.

<코너>

디지털 콘텐츠

도움을 받아요.

주환이의 모습을 더 살펴볼까요?



※ 단원 마무리: 배움 게시판

☑ 차곡차곡 정리해요.  (색연필로 동그라미 표시하는 아이콘)

학습한 내용을 ○ 표시하며 정리해 보아요.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되었나요?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 색으로 만나는 생물 ----- ( )
- 놀이로 만나는 생물 ----- ( )
- 생물 속 탐험 여행 ----- ( )
- 집안 속 생물 탐구 ----- ( )
- 그림책 생물 친구 ----- ( )



## 배움 게시판

중요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요.

※ 단원 마무리: 우리 반 활동 수첩

☑ 우리 반 활동 수첩,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월	일	요일
- 참여한 활동:		
- 친구들과 한 활동:		
- 새롭게 알게 된 점:		
- 더 알고 싶은 점:		
- 생각이나 느낌:		



월	일	요일
- 참여한 활동:		
- 친구들과 한 활동:		
- 새롭게 알게 된 점:		
- 더 알고 싶은 점:		
- 생각이나 느낌:		

→ 활동 설명

「통합교과」에서 참여한 활동을 학생 스스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누적하여 배운 내용을 점검 및 종합 할 수 있는 코너 마련하기

연구보고서 2025-06

현장 교사 및 학생 만족도를 반영한  
「통합교과」 교과서 개선 연구

발 행 2025년 8월  
발 행 인 (주)비상교육,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발 행 처 (주)비상교육,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 소 07071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신대방동 395-62)  
전화: (02) 2651-1950  
팩스: (02) 2651-1954  
www.textbook.ac  
인 쇄 유성사 (02-923-4032)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협의 없이 복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 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비매품〉